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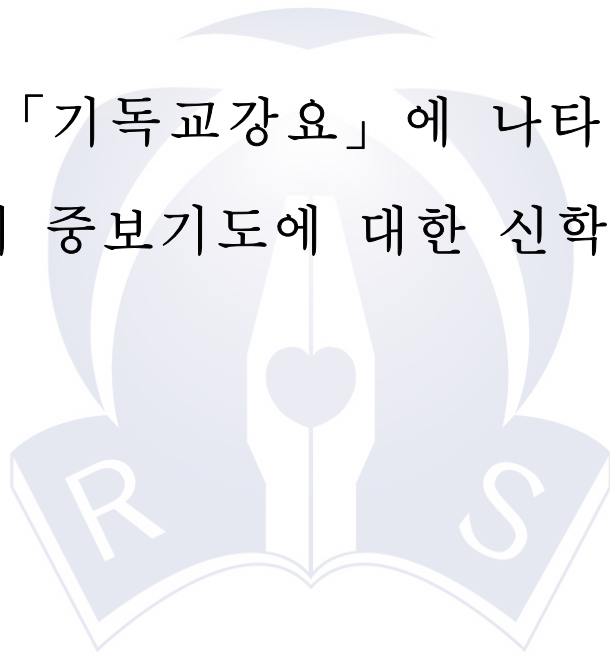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2000학년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중보기도에 대한 신학적 고찰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임혜중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임혜종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년 12월 일



## 차 례

### 제 I 장 서 론

A. 문제 제기 .....	1
B. 연구 목적과 중요성 .....	3
C. 연구방법과 제한 .....	3

### 제 II 장 중보기도의 정의와 필요성

A. 중보기도의 의의 .....	5
1. 사전적 의미 .....	5
2. 일반적 의미 .....	7
B. 칼빈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과 가치 .....	11
1. 믿음의 으뜸가는 행사 .....	11
2. 은택의 수단 .....	16
C. 중보기도의 필요성 .....	20

### 제 III 장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론에 대한 신학적 고찰

A.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의 위치 .....	28
B. 올바른 기도법칙 .....	32
1.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경건한 초자연성이 요구된다(첫째법칙) .....	32
2. 진정으로 부족을 느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둘째법칙) .....	34
3. 자기 신뢰는 버리고 겸손하게(셋째법칙) .....	37
4.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넷째법칙) .....	41
5. 불완전한 기도도 들으심 .....	45

### 제 IV 장 칼빈이 바라본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A.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 .....	49
B.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	50
C. 그리스도께서 신자 상호간에도 중보 되심 .....	51
D.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 .....	52



제 V 장 「주기도문」에 나타난 칼빈의 중보기도 이해

- A.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된다 ..... 55
- B. 주기도문의 완전성 ..... 57

제 VI 장 그릇된 중보기도

- A. 칼빈이 배척한 성자(聖者)의 중보 교리 ..... 64
- B. 현대 신학자들의 기도 ..... 67
- C. 여전히 불완전한 중보기도 ..... 72
  - 1. 말씀을 떠난 중보기도 ..... 72
  - 2. 하나님의 뜻을 떠난 중보기도 ..... 73
  - 3. 신비의 체험을 위한 기도 ..... 75
  - 4. 외식하는 기도 ..... 76
  - 5.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 ..... 78

제 VII 장 중보기도의 유익과 방향

- A. 중보기도가 유익되는 점 ..... 80
- B. 올바른 중보기도 방향 ..... 82

제 VIII 장 결론 ..... 87

參 考 文 獻 ..... 93



## 제 I 장 서 론

### A. 문제 제기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떨어져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가 고난 당하시며 행하신 일은 모두가 우리에게 무용·무가치한 것이며, 또한 아무리 열심이 있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기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간구라면 올바른 기도라 할 수 없다.<sup>1)</sup>

작금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로 종파, 지역, 계층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 화목과 연합을 저해하고 갈등과 반목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기복신앙이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바, 이는 대부분 신자들의 신앙이 자아 중심적 성향이 농후하여 개인 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과 개교회 중심의 편익을 우선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사력을 다하는 듯 하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대상을 위해서는 아주 소극적이며 열의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출세, 성공, 자아실현과 범사의 안녕을 도모하며 나아가 자기 가족과 직장 그리고 간혹 이웃을 위해 기도하나, 현세의 배부른 성도들의 기도는 날이 갈수록 힘이 없고, 눈물이 메말라 가며,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식어 가는 것을 보게되는 한편, 돈과 종교의 형식으로 자신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과 신비의 체험이나 자아 성취,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선한 행위가 된다는 자기 의(自己義)를 추구하는 사마니즘적인 경향으로 치닫고 있는 점도 없지 않다. 이는 기도의 출발점이 개인적이며 개교회 중심적일 경우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차제에 이런 불완전한 기복신앙의 병폐를 극복하고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된다 하겠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듯이 중보기도는 철저한 이웃 사랑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는 평생을 영혼구원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하며, 교회의 양적 성장보다는 탕자를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며(벧전3:12; 시34:15) 우리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더 잘 증명하시기 위해

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Ⅲ)」,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pp.408, 1.



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려 하신다. 이러한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어떤 지체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 규칙적이며 장시간의 기도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것이며, 오늘날 교회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가장 절실한 영적 능력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차체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무엇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며 기도로 요청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다.

오늘날 중보기도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중보기도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대개는 독자들의 욕구와 취향에 맞추어 교회 성장, 영적 축복, 기도의 능력, 응답받는..., 보좌를 움직이는... 등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은택만을 바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내 몸과 같이 헌신을 요구하는 중보기도의 요구가 미흡하였다. 또한 중보와 관련된 논문에서는 ‘갈뱅의 기도이해에 관한 연구’, ‘갈빈의 기도론에 관한 연구’, ‘갈빈의 기도론과 현대기도론 비교 연구’ 논문 등이 기독교 강요 3장 20절에 대한 이해를 주로 고찰하였으나 적용부분이 미흡하였고, ‘중보기도에 관한 일 연구’ 논문에서는 갈빈의 입장이 배제된 일반적인 중보기도에 관한 의미를 성경적 실례를 들어 접근하여 신학적 근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차체에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진정한 중보기도의 연구가 요구되었다.<sup>3)</su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보기도의 정의와 필요성과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갈빈의 기도론을 고찰함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를 이해하는 한편 잘못된 중보기도에 대한 이해를 통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중보기도가 절대 필요하며 유익이 되는 점을 밝히 드러내고자 한다.

## B. 연구 목적과 중요성

복음의 확장은 중보기도로 시작되고 중보기도로 진행되며 중보기도를 통하여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모든 교회들의 성령 충만한 중보기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원의 서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마22:37-40) 기도해야 하는 중보기도의 모본을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정립하려는데 있다.

2) G. Peter Wagner, 「기도는 전투다」 중에서.

3) 참고문헌 논문 참조.(‘기도론’ 등 다수와 관련논문)



따라서 칼빈의 기도론에 나타난 중보기도의 신학적 고찰과 칼빈이 바라본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및 그가 배척한 그릇된 중보기도를 비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중보기도를 세우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 C. 연구방법과 제한

본 논문의 연구는 중보기도에 대한 의미들을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의 기도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신자간의 교통함과 생의 모든 영역에서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수단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마련된 특권이다. 특히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놀라운 힘이 있고, 현세와 같은 비상한 상황 속에서 절대 필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중보기도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의의와 필요성, 칼빈의 기도론에 나타난 중보기도의 신학적 고찰 및 칼빈이 바라본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칼빈이 배척한 중보기도와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를 통한 올바른 중보기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진행은 먼저 1장 서론에서 문제제기, 연구목적과 중요성, 연구방법 등을 기술하며, 2장에서는 중보기도의 의의, 기도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중보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3장에서는 기독교 강요에서의 기도의 위치를 포함한 올바른 기도법칙, 4장에서는 칼빈이 바라본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5장에서는 「주기도문」에 나타난 칼빈의 중보기도 이해, 6장에서는 칼빈이 배척한 중보기도, 7장에서는 중보기도의 유익과 방향을, 그리고 마지막 8장을 결론 순으로 전개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제한사항으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기도의 제 분야를 다루지 않을 것이며,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모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 및 칼빈의 기도론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 제 II 장 중보기도의 정의와 필요성

### A. 중보기도의 의의

#### 1. 사전적 의미

헬라어로 ‘중재하다’는 μεσιτεύω(메시튜오)라 표기하며 그것의 명사형인 μεσιτης(메시테스)가 중보자(Mediator)이다. 메시테스는 신약에서 6번 쓰였고<sup>4)</sup>(갈3:19, 20~), 구약에서는<sup>5)</sup> 70인역의 욥 9:33(‘판결자’)에만 언급되었으나 이 개념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중보자의 역할은 두 사람(혹은 단체) 사이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좋은 관계를 더 증진시키거나 그들을 화해시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중보사역을 담당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일했으며(히5:1),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다.(신18:18-),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자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sup>6)</sup>

4) 신약의 기도용어는 먼저 προσεύχομαι(프로슈코마이)는 “전에...을 향하여 기도하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딤후2:1, 골4:2, 눅22:44, 마6:6, 고전11:13), δεόμι(테오마이)는 “요청하다, 구하다, 기도하다”로(행21:29, 8:34, 눅5:12, 9:38, 고후5:2, 갈4:12) 곧 무엇이 부족한데 그 부족을 채워달라는 간청의 뜻이다. 또한 ἀγωνίζομαι(아고니조마이)는 “힘찬 간구나 열심히 기도”하는 의미로(눅13:24, 살전2:2,...), ἐντεύξις(엔튜시스)는 “청원하다, 부탁하다, 기도”의 뜻으로(딤후2:1, 4:4), αἰτέω(아이테오)는 “강요하다, 요청하다”로(고전1:22, 막6:24), ἔρχομαι(유코마이)는 하나님을 불러내는 가장 포괄적인 단어로 “기도하다, 묻다, 간구하다”(약5:15, 고후13:7), “바라다”(요삼 2절, 롬9:3)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Willam F. Arndt, F.Wilber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Tr. Walter Bauers(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5) 구약의 기도 용어 중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이 כָּלַל(파랄)로 “사이에 들다”, “중재하다”는 뜻으로 예배와 행위로써 예배자 자신이 그의 몸을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 외에도 כָּרָא(카라)는 “부르다, 선언하다, 읽다”의 뜻으로(신4:7), שָׁאַל(샤알)은 “묻다, 문의하다, 요구하다”의 뜻으로(시27:4, 민27:21), פָּגַע(파가)는 “만나다, 간청하다.”의 뜻으로(사53:12, 59:12, 렘7:16), הִלַּח(하라)는 “소원을 간청하다”의 뜻으로(시119:58), אָתַר(아타르)는 “기도하다, 울며 매달리다.”의 뜻으로(창25:21, 출8:26, 삿138) 사용되었다. (왕상18:28, 호7:14, Francis Brown, S.R.Driver, C.A.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1966>. p.813.)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히9:15; 12:24), 하나님과 사람들을 새로운 관계로 연결시키셨다.(딤후2:5) 그는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창조에서도 중보자셨다.(요1:3; 골1:16; 히1:2) 그는 죽음으로써 이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성취하셨다.(엡2:12)<sup>7)</sup> 이 성취는 가끔 ‘구원’으로 묘사되는데(요3:17; 행15:11) 이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입는다.(롬3:24) 그러나 믿음으로써 이 중보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중보를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며(엡2:18)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로 전달되고(요14:14; 롬1:8; 골3:17; 히13:15) 그들의 봉사 역시 그러하다.(벧전2:5)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며,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도움을 주신다.(히4:15, 7:25) 그는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의 모든 적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따라서 그의 중보사역은 그의 인격, 신분, 사역과 마찬가지로 여러 측면이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칭호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지는 못한다.<sup>8)</sup>

또한 쉘마사전에 따르면 중보하다(intercede)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사이로 가다, 혹은 통과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본래 중보를 창안하신 분이라는 것이며, 그 분은 우리와 함께 중보하신다. 도고(禱告) 혹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sup>9)</sup>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 하였고, 야고보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로 권면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중보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순수한 중보는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가 만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소돔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이기심 많은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기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위해 특별한 중보의 기도를

6) 데릭 윌리엄스(Derek Williams), 「*New Concise Bible Dictionary*」, 이정석 등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p.498.

7) 칼빈은 “그리스께서 죽음으로... 화해를 성취하셨다.”는 말씀에 관하여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 사도신경 해설(15)에서 말하기를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고통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격심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시21:9) 하나님의 진노를 중재하고 우리의 이름으로 그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며(사53:4, 11), 그리하여 우리의 빛을 지불하고 형벌을 제거하시되 그 자신의 죄(결코 있을 수 없는) 때문인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같이 하시는 것이다.”고 하였다.

8) loc. cit.

9) 중보기도는 우리가 돕고자 하는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써 어느 곳이라도 접근할 수 있으며 만날 수 있다.(강훈병, 쉘마 주제별 종합사전, 서울: 성서연구사, 1992. p.14, 29.)

10) 전용복, 「생명력있는 중보기도」, (서울:두란노, 2000). p.29.



드리셨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밑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22:31,32), 이러한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을 못박고 조롱하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셨으며 그 분께서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지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sup>11)</sup>

## 2. 일반적 의미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말하기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 수치감과 공포심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친히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대언자와(요일2:1) 그의 앞에 있는 중보자로(딤후2:5; 히8:6, 9:15) 삼으셨는바 이는 그리스도의 인도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요 16:24)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요16:26)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 14:13)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중보로 노여움을 푸시고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말로서 중보기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sup>12)</sup>

오늘날 교회의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중보기도라 하면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여 불신자와 병든 이웃, 목회자와 위정자,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이해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성경에 언급된 많은 중보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사야서 62:6-7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 날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중보자들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바 이른바 ‘파숫꾼’이 그들이인 것이다. 누가복음 2장에도 안나라는 여인(선지자)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한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숭배와 죄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심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늘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

11) E. M. Bounds, 「기도의 위인들(Pray and Praying Men)」, 홍성국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p.24.

12) *Inst.*, III. x x. 17-19.



가 주의 종이 됨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왕상 18:36-38)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다.<sup>13)</sup>

성경에는 중보기도를 이해할 만한 또 다른 많은 기사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눅11:5-8) 여기서 친구 집에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은 자신을 위해 떡 세 덩이를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자리에 대신 서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Tippit는 ‘예가기도’를 설명하면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 서도 이루어지이다”의 본질이 중보기도라고 보면서 “중보기도는 자비하신 예수의 주권에 대한 반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Mahoney는 “중보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자비를 얻기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간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비록 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나 대부분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함이 보통이다.<sup>14)</sup>

이정현은 “중보기도는 그 내용과 길이 상 다른 기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supplication과 함께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supplication이 주관적이요 intercession이 객관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 기도에 관한 성경적 견해를 볼 때(약 5:17-18)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만 아니라, 간구자가 어떤 사람의 유익이나 또는 다른 어떤 사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중보기도는 성별, 인종, 신·불신자 사이의 차별을 두지 않고 또한 인간과 밀접한 자연과도 관계가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교육적 상황도 반영되는 우주적 기도이다.”라고 하였다.<sup>15)</sup>

Ellen G. White은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 탄원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

13) 여주봉,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새물결선교회, 1998), pp.259-260.

14) 이정현, 「중보기도」, (서울: 베드로서원, 1998), pp.10-11.

15) 이정현(소망교회)은 2000.4.25. 同대학원 부활주일 특별강좌에서 “공중기도 중심의 예배순서에 대한 실천신학적 접근”주제하 강연중, 美 테일러 박사는 우리나라 성수대교 봉괴와 김일성 사망, 일본의 고베 지진 등을 알게하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바 있으며, 웨슬리 듀엘 박사는 그가 25년간의 인도 선교사 시절보다 최근 5년간의 중보기도가 더 위력적이었다고 증언하였다.



하시고,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인성을 쓰신 그 분의 팔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동시에 신성의 팔은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으신다. 즉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 기도의 중재자가 되신다고 하였다.<sup>16)</sup>

요약하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하며, 성경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sup>17)</sup> 아울러 눅11:5-8의 비유와 같이 자신을 위해 떡 세 덩이를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벼를 위해 강청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본질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자리에 대신 서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 B. 칼빈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과 가치

### 1. 믿음의 으뜸가는 행사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의 제목에 의하면 “기도는 믿음의 으뜸가는 행사이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Prayer, which is the chief exercise of faith, and by which we daily receive God’s benefits.)” 즉 기도의 올바른 정의는 믿음의 으뜸가는 행사라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칼빈은 기도가 하나님의 은택을 매일 받는 믿음의 행사이며<sup>18)</sup>,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중요한 특권이 기도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참된 증거를 보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16) 엘렌 G. 화이트(Ellen G. White), p.224.

17) 예장대신의 헌법에 따르면 “다른사람을 위하여 기도:다른사람 곧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정결과 흥왕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목사와 각처에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의를 인하여 해 받는 모든 사람들과 본 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인과 죽게된 사람과 비참한 사정을 당한 사람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이와 남·녀 노소와 수륙(水陸)에 여행하는 사람과 본 교회 소재 지방과 각 관리와 군인과 그 밖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예장대신 헌법 제7조, 5장:공식기도)

1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에 따르면 “기도는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일과 지금 살아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여진다”고 하였으며, 제14장에는 “...믿음의 은혜는... 말씀의 사역 뿐만 아니라 성례의 집행과 기도예 의해서도 믿음의 은혜는 성장되고 강화된다”고 하였다.(\_\_\_\_,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송종섭역, 서울: 소망사, 1993.)



으뜸가는 행사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된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은 말씀이 약속해준 보화들을 캐낸다.<sup>19)</sup>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이며, 우리의 의무이자 필요한 것이다.

## a. 믿음에 따르는 기도

칼빈은 자신의 기도론을 믿음과 기도로 시작하면서 기도는 믿음 뒤에 필연적으로 뒤따라 오는 것으로 “기도는 인간의 심령 속에 신앙이 존재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신앙이 존재하는 경우에 기도가 둔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은 즉각적으로 기도로 터져 나온다.”고 하였다. 사람에게는 선이란 것은 전연 없고,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곤란에 빠진 자기를 구해낼 힘은 이제 자기의 밖에서 구해야 하는 바,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그 안에서 하늘 보고(寶庫)를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러러보고 우리의 모든 기대가 그를 의지하며 우리의 소망이 전적으로 아들에게 밀착됨으로 안식을 얻게 하신다.<sup>20)</sup>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교훈을 받은 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없는 것이 모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마치 우리가 넘쳐흐르는 샘에서 물을 퍼내듯 은혜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얼마든지 얻도록 하셨다는 것을 앎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아는 그것을 찾으며 기도로 그에게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땅 속에 감추인 보화가 어디 묻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도 그 보화를 무시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사도는 믿음이 복음에서 나는 것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받는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증거를 인치는 양자의 영이 우리의 정신을 고무시켜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무 의심 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sup>21)</sup>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sup>22)</sup>

O. Hallesby는 믿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버리는 것이라 하였으며<sup>23)</sup>, 정장복은 기

19) *Inst.*, III. x x. 1.

20) *Inst.*, III. x x. 1.

21) *Inst.*,

22) *Inst.*, III. ii. 7.

23) O. Hallesby는 그의 저서 ‘기도’에서 “믿음은 스스로의 궁핍을 알며 스스로의 무력함을 인정하



도의 필수 요건 중 믿음의 자세를 의심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믿음과, 공의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sup>24)</sup> 이와같은 견해는 “기도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도에 따른다는 것이야말로 기도를 위한 한 법칙이며, 이 법칙을 확립하는 것보다 기도의 본질과 가장 잘 조화가 되는 일은 없다.”<sup>25)</sup>는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관한 칼빈의 견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sup>26)</sup>으로 해야함을 분명히 깨닫게 한다.

## b. 믿음의 결과로서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3:2)”고 말씀하셨다. 이는 “하늘나라가 가까왔으므로 회개하라(막1:15)”는 것과 같은 뜻이다. 여기에서 회개의 근원이 믿음에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만들기까지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27)</sup>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초판」에서 “나는 회개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회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끌어 준다. 그리스도는 신음하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지고 주리고 목마르며 슬픔과 비참으로 죽어가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죄인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사61:1-3, 마11:5, 28, 눅4:18)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지향하여 분투하며, 그것에 몰두하고, 전 생애를 투입하여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8)</sup>

---

여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태가 얼마나 나쁜가를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 버리는 것”이라 하였다.(O. Hallesby, 기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p.27.)

24) 정장복은 기도의 필수 요건중 맨 먼저 믿음의 자세를 들면서 기도자가 먼저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는 첫째, 하나님의 실존에 조금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되며, 둘째, 하나님의 생각과 기도자의 생각이 언제나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중요하고, 셋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진노와 공의를 행하시는 엄격한 속성 뿐만아니라 자애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정장복, 한국종교문화의 기도심상과 기독교 기도의 재이해, 장신논단 9집, 1993. pp.143-145.)

25) *Inst.*, III. x x. 11.

26) 칼빈은 믿음을 그의 강요 초판에서 “우리 영혼의 소용을 위한 것이든 육신을 위한 것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무엇이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사실, 그리고 성경이 그분에 대해 약속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 또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곧 구세주이심을 의심치 아니하는 사실, 이런 사실들로 인해 우리는 설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그를 통해 죄의 용서와 성화를 얻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마침내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구원도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시며 약속하시는 온갖 일들의 핵심이요 총체”라고 하였다.(J.Calvin, 기독교강요 초판, 양낙홍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p114.)

27) *Inst.*, III. iii. 2.

28) J. Calvin, 「기독교강요 초판」, 양낙홍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p259.



칼빈은 다만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곳에 올바른 생활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할 뿐이라며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그의 지체들에게 전달하는 그 영이 지배하셔야 된다는 것과, 둘째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시130:4)”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호의를 가지셨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종을 기뻐하신다고 믿지 않으면 아무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죄를 관대히 용서해 주시는 이 자비심이야말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호의를 알리는 표지라고 말한다. 따라서 회개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그를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자 옛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으로써 성립된다.<sup>29)</sup>

여기에서 회개를 좀더 분명히 정의하자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sup>30)</sup> 첫째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생활을 전향”함에 있어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가 변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혼은 그 옛 성질을 벗어버려야만 비로소 갱신과 조화되는 행위를 낳을 수 있다. 이 변화를 표현하고자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에게 새 믿음을 가지라고 한다.(겔18:31)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신6:5, 10:12, 30:2, 6, 10)고 반복하여 가르쳤으며 나아가 회개를 “마음의 할례”라고 불려서 가장 깊은 감정까지 검토한다.(신10:16, 30:6) 또한 예레미야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 사악한 생각을 빼어버리지 않으면, 의를 행하려 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렘4:1, 3-4)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다.<sup>31)</sup>(약1:8)

둘째로, 회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데서 생긴다고 말했다. 이는 죄인의 마음이 회개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본성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협하실 때에 잠든 자들을 조용하게 달랠 수 없는 것과 같이 더욱 엄격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의 다른 이유는 사람의 생활이 모든 덕으로 가득 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는 칭찬 받겠지만 하늘에서는 가증한 것 즉, 하나님의 권리와 영광을 도둑질하는 불경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2)</sup>

셋째로, 회개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는 주 부분으로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사1:16-17)라고 한 바 그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악을 떠나라고 호소할 때 요구하는 것은 악과 패역함이 가득한 육을 전멸시키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모든 육

29) *Inst.*,

30) *Inst.*, III. iii. 6.

31) *Inst.*,

32) *Inst.*, III. x x. 7.



의 감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므로(롬8:7)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첫걸음은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육을 포기하며 우리의 악한 욕심과 작별하고 심령으로 새로워지라는 명령을 받는다.<sup>33)</sup>(엡 4:22- 23)

이 두 가지 일 즉,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참할 때 이루어지는바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며, 주께서는 생명의 기업을 받도록 양자로 삼으신 모든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회복은 한 순간이나 하루나 또는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평생 필요하다.<sup>34)</sup>

## 2. 은택의 수단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기도가 은택의 수단이라는 점은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35)</sup>

### a. 인간의 전적 무능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가 믿음의 으뜸가는 행사라는 측면에서 믿음과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았다. 아울러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인간의 결핍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즉 “믿음은 우리의 불행과 궁핍과 더러움과 결합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다.”<sup>36)</sup>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현 상태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기도가 은택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명하셨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 문제를 기도의 둘째 법칙에서 다루는 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의 무력(無力)을 느끼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첨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기도에서 단지 인간적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칼빈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sup>37)</sup>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기도의 구실과 동기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깨닫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33) *Inst.*, III. x x. 8.

34) *Inst.*, III. iii. 9.

35) *Inst.*,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3권 20장의 제목으로 “기도 :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다.

36) *Inst.*, III. x x. 12.

37) *Inst.*, III. x x. 35.





를 지는 훈련-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고 까지 말한다.

칼빈은 인간적인 필요성이 기도를 간절하게 한다며 비록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유익을 받고자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없는 것이 기도를 형식적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칼빈의 이러한 강조는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에서, 특히 이지적인 신앙으로 인해 기도의 간절함이 없는 교회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 b. 죄의 용서

칼빈은 그의 「강요」 제 2 권 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다루기 전에 타락 후의 인간을 다루는데 이곳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간을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며, 따라서 우리는 타락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인 죄인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야 할 존재로서 이같은 인간관을 고려할 때 기도에서도 죄 사함이 중요한 부분임이 당연하다.

열정, 정직, 감사, 묵상, 기쁨, 확신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택들이다.<sup>38)</sup> 칼빈은 이러한 은택들 중에서도 죄 사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죄 사함에 관하여는 「강요」 20장 9절과 45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9절의 제목이 죄 사함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칼빈은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은 기도의 준비이며 기도를 여는 문과 같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제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굴거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과대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녀가 곤란한 문제들을 부모에게 털어놓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 없이 많은 우리의 죄는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아픈 자극을 줄 것이지만 지극히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는 비할 데 없는 자비로써 이런 경우에 적합한 치료제를 제공하시고, 우리의 모든 혼란을 진정시키며 근심을 감하시고 공포심을 없애 버리신다.”<sup>39)</sup>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근심과 불안의 치료제가 된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그 치료는 궁극적으로 신자의 죄 사함이다. 이 점에서 기도는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은택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칼빈은 죄사함을 위한 기도는 기도의 준비로서도 중요하지만 간구의 중심 내용으로서도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주로 그리고 특별히 구해야 할 것은 모든 다른 축복의 근원인 공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길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칼빈은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구분한다. 하나는 죄의 대가인 형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용서 그 자체를 구하

38) *Inst.*, III. x x. 3.

39) *Inst.*, III. x x. 12.



는 기도이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문제는 죄사함 그 자체를 위한 기도는 그것의 응답 여부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칼빈은 분명하게 죄 사함을 약속하는 성경(요일 1:9)을 인용하며, 결국 죄 사함 자체에 대한 기도 응답의 여부는 일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고, 죄 사함을 위한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며, 또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바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며 동시에 믿음을 견고케 한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기도가 죄 사함의 수단이면서 또한 죄 사함의 결과이기도한 것을 그의 주기도문 다섯째 기원 해설에서 이르기를 “이런 의미에서 만일 우리가 현재 우리를 해하거나 이미 해한 모든 사람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된다”<sup>40)</sup>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죄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부성적(父性的) 사죄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솔선하여 오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시143:10)

### c. 하나님과의 대화

칼빈은 기도가 믿음의 행사요, 은택의 수단임을 밝히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수단임을 말한다.<sup>41)</sup> 칼빈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떤 성질의 것인가를 밝히기보다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전제한 후 하나님과 올바른 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히 “기도의 본질이 마음에 있다.”고 하였고, 기도 자체는 마음을 찾으시는 분이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쏟아 부어진 마음속의 어떤 감정이라 하였다.<sup>42)</sup>

칼빈은 마태복음 6장 6절을 해석하기를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울여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라는 가르침이다”<sup>43)</sup>라고 하였다. 우리의 몸을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따뜻한 감정 속에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후6:16) 때문에 기도에 사용되는 소리나 노래가 마음의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입술 끝에서나 목줄기에서 솟아나는 이 소리는 하나님의 진노만을 불러일으킬 따름이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40) *Inst.*, III. x x. 45.

41) *Inst.*, III. x x. 4.

42) *Ibid*(초판), III. x.

43) *Inst.*,



뿐이라”(사29:13; 마15:8-9)<sup>44)</sup>

바울은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선언하였으나<sup>45)</sup>,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답시고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여 들어감을 경계하고자 한다. 이점을 도날드 블러쉬(Donald G. Bloesch)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차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응답으로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에게로 올라가는 것으로<sup>46)</sup> 이해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인간이 신성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아무런 공로 없이 얻은 은혜에 의해서만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sup>47)</sup>이라고 하였다.

한편 칼빈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분노하신다는 것을 아는바 이는 그들을 미워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낌으로써 놀라 육적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며, 나태를 버리고 분발하여 회개하도록 만드시려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실 때마다 간접적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신다. 우리의 심정에서 사악한 의혹을 일체 근절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다.”고 말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분께 나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sup>48)</sup>

### C. 중보기도의 필요성

기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sup>49)</sup>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보물에 우리의

44) 이병철, 「칼빈의 기도론에 관한 연구」, (고신대신대원, 1997), pp.17-18.

45) 맥시듀남은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는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제사지낼 때, 하나님은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출32:7-).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모세는 생명을 걸고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32:32).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도다(출32:14). 하나님은 여러 번 그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 변치 않으시는 원칙이 있다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자기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맥시듀남, 오성춘역, 기도훈련, 예장총회출판국, 1991. p.8.)

46) 신비적인 현상(것).

47) Donald G. Bloesch, The Struggle of Prayer, 오성춘·권승일 역, 「기도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p.10.

48) *Inst.*, III. ii. 13-17.

49)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16)은 “어찌하여 기도가 필요한가?” 라고 묻고 대답하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감사의 주요 부분인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성령을,



손이 닿으려면 필히 기도의 힘을 빌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교통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필요한 때에는 그 약속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대해도 좋다고 약속하신 것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면서 칼빈은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파낸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고 말하였다.<sup>50)</sup>

칼빈은 이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기도가 유일한 요새가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일들을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는 그의 섭리와, 약하고 거의 쓰러지려고 하는 우리를 지탱하는 그의 힘과, 비참하게 죄에 눌려 있는 우리를 받아들여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한다. 즉,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함으로써 기원한다. 따라서 우리의 양심에 특별한 평화와 안식이 온다. 우리는 긴급히 필요한 일을 주 앞에 알리고 나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sup>51)</sup> 주께서 낱낱이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또 주께서 우리를 가장 잘 돌보아 주실 의사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완전히 안심한다”<sup>52)</sup>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둘째로,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해야 하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기 위해 기도로 은혜의 수여자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며, 넷째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생각하기 위함이며, 다섯째로,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감사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결코 줄거나

---

그에게 그것들을 성실히 욕망하여 계속적으로 요청하며 그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겠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기도는 ... 하나님의 행복들이 주어지는 데 조건일 뿐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깝게 인도한다고 하였다.(박형룡, 박형룡박사저작전집 V,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회, 1988. p.383.)

50) *Inst.*, III. x x. 2.

51)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나갈 길이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과 절망의 벽을 대하게 된다. 바울 사도는 고후 1장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8절)고 하였으며, 다윗도 “나와 사망의 차이는 한 걸음 뿐”(삼상20:3)이라 하였고, 욥은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 없으며...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욥3:21,26)고 말했다.

52) *Inst.*,



게으르지 않으면서, 게으른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무시는 것같은 인상을 주시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단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그 분을 찾으며 그 분께 간구 해서 큰 유익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다.<sup>53)</sup>

칼빈은 그의 강요 초판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으신 것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첫 번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진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보통 자기 열심에 떠밀려서, 하나님을 부르다가 그들의 첫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화가나 있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서는, 들으리라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그를 더 이상 부르지도 않는다. 그러나 기도하고 오래 기다린 후에도... 우리의 믿음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준다. 곧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 속에서 부요를, 곤경 속에서 위로를 소유하도록 하실 것이다. 비록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실패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기대와 인내를 저버릴 수 없는 분이시다...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시험으로 연단하시며 때로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를 맛보기 전에 오랫동안 진창 속에 빠져 있도록 허락하시기도 한다.”<sup>54)</sup>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드리는 기도이어야 하며,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는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언하며,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야고보 기자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5:15)고 가르치면서 이웃이나 형제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합심하여 서로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55)</sup> 이러한 중보기도의 대상은 비록 이웃뿐만 아니라 교회와 직장, 나아가 국가와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으며, 회개, 치유, 복음전파, 신앙,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로서 일정한 대상으로 정하기보다는 자기 이외의 다른 대상을 위해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이다.<sup>56)</sup>

한편, 중보기도의 성경적 근거로는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기도를 하고

53) *Inst.*,

5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초판)』, 양낙홍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p. 184.

55) Ellen G. White, 「기도의 능력(The Power of prayer)」, 전충권 역, (서울: 도서출판 칸트리 라이프, 1996), p.225.

56) 신인현, 「기도드리는 법」,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5), p.49.



게시며,(요14:16, 17:9, 20) 베드로<sup>57)</sup>를 위한 기도(눅23:32)와 십자가 위에서 기도(눅23:34)하셨는데, 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한 기도로 중보기도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둘째로, 성령이 중보기도하고 계시며,(슌12:10; 롬8:26)<sup>58)</sup> 셋째, 예수님 자신이 중보의 위치에 계시고(딤후2:5, 6; 요14:13, 15:16, 16:24) 넷째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는 “나” 개인이 대상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중보기도인 것이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비유(눅11:5-8) 중에 중보기도 하는 방법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신다. 이같은 근거에 의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약5:15, 너희 죄를...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sup>59)</sup>

그러나 혹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곤란을 당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공연한 것이며, 마치 우리가 불러일으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줄거나 심지어 주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지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신 것은 그 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인정을 기도로 증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가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도 그 유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있게 찬양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 더욱 기도하였다. 엘리야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는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릴 것을 분명히 약속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애써 기도하며, 일곱 번까지 그러했다.(왕상18:42) 이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확신이나 자기가 한 예언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기가 없어지기

57) 베드로는 한때 감옥에 던져져 절망의 상황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며칠전 야고보가 투옥되어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양쪽 팔목에는 쇠사슬이 그리고 옥문에는 경비대가 지키고 있었으며, 유월절기가 끝나면 바로 처형되기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밤중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이 기적의 비밀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다름아닌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에 대한 특별한 의미에서의 응답을 약속하셨으며(마18:19-20), 주님을 신뢰하는 지도자들은 “기도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옥문을 연 것이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단회적인 기도가 아닌 석방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한 결과이었다. 여기에서 토마스 왓슨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이 지속적인 중보기도가 옥문을 열었다고 하였다.(이동원, 「찬미회보」, 지구촌교회 중보기도사역위원회, 2000. p.1.)

58) 박형룡박사도 칼빈의 말을 인용하여 “성령 자신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 확신, 욕망, 탄식을 격발하셔서 우리의 자연적 능력들이 미칠 수 없는 개념들에 향하게 하심이라”고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신자들이 성령의 감화 아래 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V,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 p.400.)

59) 김선도, 「기도의 신학」, (서울: 도서출판 광림, 1992), p.219.



나 태만해지지 않도록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불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sup>60)</sup>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을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얻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 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 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시145:18)라고 하였으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어 시되...”(벧전3:12; 시34:15)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곤란하고 눈먼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더 잘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려 하신다.<sup>61)</sup>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즐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121:4)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한편,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실 때에도 있다.<sup>62)</sup> 마치 우리를 향하여 “조금만 더 인내하라, 그리고 열심 내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충만케 부어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것이다.

칼빈은 니느웨 백성들이 무시무시한 파멸의 경고를 받고 떨어서도, 배옷을 입고 주께서 그들에게로 돌이키셔서 그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은3:5,9)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였다고 말한다.<sup>63)</sup> 이 밖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함을 보신 후 그곳을 멸하려 하셨을 때 멸할 자와 멸망당할 자 사이에서 도고한다.(창18:20-33)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되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아름다운 것이었다.

또한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바와 같이 능력있는 중보기도자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듣고 십계명도 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조금하여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중죄를 범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산에 올

60) *Inst.*, III. x x . 3.

61) 시편 12편과 2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살펴보시나, 사람들이 다 치우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 우리는 실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시대에 살고있으며 영적 눈이 멀어있다.

오늘날 우리는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들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족과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이 민족의 죄를 인하여,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해야 한다. 왜냐면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슬피하며 울었다. 이는 사울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들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지 않을 수 없다.(여주봉,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새물결선교회, 1998. pp.265-267)

62) *Inst.*, III. x x . 2-3.

63) J. Calvin, 「기독교강요 초판」, 양낙홍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p257.



라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여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다.(출32:30)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32:31-32). 이 기도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도 불사하겠다는 대단한 각오의 증보이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의분을 잊게 했으며 그의 백성들을 파멸시키지 않게 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다.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한 자일 뿐 아니라 증보자로서의 사명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삼상7:5). 최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앞에 나아갔던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그를 폐위시켰을 때,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삼상12:23)고 하였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백성들의 상처를 자기의 것으로, 민중들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여겨 긍휼의 문을 두드린 진정한 증보기도자였다.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두개가 유다 민족을 멸하려는 하만의 술책에 대항하여 금식하며 기도로 싸운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권력자 하만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 민족의 운명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릎을 통해 건진 것이다.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모르두개가 달릴 장대에 하만을 달고, 에스더의 권위를 굳게 하셨으며, 유다에게는 슬픔 대신 희락과 안녕을 주셨다. 뿐만아니라 이방 땅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유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타나냈다.

히스기야는 수많은 적들을 대항하여 기도로 방어벽을 쌓고 또한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이다. 앗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범해왔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알려 기도를 부탁한 후 앗수르 왕에게서 온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다. 그의 기도는 간박하며 간절한 것이었다. “히스기야가...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하나님이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왕하 19:14-19). 분명 히스기야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그의 방어책은 기도였다. 결과적으로 주의 천사가 속히 임하여 185,000명의 앗수르군을 흠으셨다. 기도하는 왕과 선지자의 합심기도는 구원을 가져다주었고 하나님의 적을 진멸하는 일에 있어 큰 능력이 되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열락지 않으시고 물리치신 바





(렘14:10-12) 그 이유는 그 백성 개인 개인에게 책임을 더 물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이 들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비록 하나님에 의해 거절된 예레미야의 기도였으나 그의 기도 자체는 이웃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sup>64)</sup>

요약하면,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로 그들을 위해 돕는 기도로서 (마22:37-40)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언하며, 기도로 복음을 널리 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칼빈은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파낸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믿음으로 친구를 위하여 강청하는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신다.

### 제 III 장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론에 대한 신학적 고찰

#### A.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의 위치

칼빈은 자신의 기도론을 기독교강요 제 3권 20장에서 다루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터툴리안(Tertulian)의 De oratione, 오리겐(Origen)의 εὐχή, 그레고리(Gregory of Nyssa)의 On The Lord's Prayer, 그리고 어거스틴과 성 빅토르의 휴(Augustin and Huhg of st, Victor)의 논문들이 다 유명한 기도론으로 꼽히지만 칼빈의 기도론을 따르지 못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주요 훈련은 “기도하는 것”이며, 이것은 “신앙의 참된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sup>65)</sup>

그러나 오늘날 이른바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그들의 신학에 기도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구원의 서정에 이르게하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소홀히 하였다. 기독교강요 1559년 최종판은 모두 4권 8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제3권 20장인 기도에 관한 장이며, 절 수 또한 52절로 성만찬(50절)의 항목보다 그 양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세대 그의 추종자들인 바빙크나 벌코프, 벌카워 등은 그들의 신학에 기도를 항목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sup>66)</sup>

64) 이정현, 「중보기도」, (서울:베드로서원, 1998), pp.91-102.

65)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성광문화사, 1997), p.239.

66) 참고 : Herman Bavinck, Magnalia Dei, 김영규역, 「하나님의 큰일」,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Louis Berkhof, 권수경 · 이상원역, 「조직신학」,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칼빈은 기도를 그의 강요 1536년 초판에서부터 다루고 있는바 초판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제 3장이 기도에 관한 장으로 사도신경의 해설을 포함한 믿음의 장에 이어 나온다.<sup>67)</sup> 우리가 아는바와 같이 제 3권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그 길로부터 어떤 유익(benefits: 복)이 우리에게 오며, 어떤 효력이 따르는가?”이며, 제 1장의 제목은 “성령의 신비한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친다”이다. 이로 보건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은 바로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이며, 그것으로 인한 유익은 믿음, 중생, 칭의, 자유, 기도, 예정, 최후의 부활이다. 즉 기도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3권에서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예정 사이에 위치시키고 있는바 이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자유가 있는 ‘인간의 책임성’ 간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 기도에서 가장 깊이있고도 의미있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기도는 성령론 안에 위치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신비로운 간격을 의미한다.

혹자는 칼빈의 추종자들의 신학에 기도의 부분이 미흡한 것을 발견하고서는 칼빈이 마치 기도를 간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칼빈의 회심과정을 살펴보면 칼빈은 기도하는 자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칼빈의 회심은 1529년경 부터 1533년경 사이로, 그는 1557년에 쓴 시편주석 서문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에 의해 나는 다시 방향을 변경시켰다. 처음 교황주의의 미신들의 깊은 수렁에서 쉽게 나를 구하지 못할 만큼 완고하게 빠져 있을 때, 갑작스런 회심으로 나의 영혼이 순종하도록 부드럽게 되었다. 그래서 참된 경건에 대한 맛을 본 후 전열심으로 추구하는데 불타올랐고, 비록 버리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머지 공부들이 더 식어지게 되었다.”<sup>68)</sup>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명히 회심후 다른 공부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바 역시 세네카의 주석에서도 Augustinus의 책들, 특별히 「신의 도성 (De civitate Dei)」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고, 또한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의 종교의 고백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는 권세가 없다(Est etiam illa confessio religionis nostrae, non esse potest nisi a Deo)’고 기술하고 있다. 이 갑작스런 회심이란 말이 한 순간에 회심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인문주의의 연구와 루터의 신학을 알고 연구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중에 회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이 회심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였으며, 자신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

67) John Calvin, 양낙홍역, 『기독교 강요(초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II,III.

68) Ac primo quidem, quum superstitionibus papatus magis pertinaciter addictus essem, quam ut facile esset e tam profundo luto me extrahi animum meum, qui pro aetate nimis obduruerat, subita conversione ad docilitatem subegit. Itaque aliquo verae pietatis imbutus tanto proficiendi studio exarsi, ut reliqua studia, quamvis non abiicirem, frigidius tamen sectarer(김영규, 기독교강요강독, 1999. pp.14-15. 재인용)



나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건은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며 그 확신 위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볼 수 있다.<sup>69)</sup>

칼빈이 자신의 회심을 언급한 시편의 서문에는 칼빈의 기도생활과 경건과 인격을 보여주는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 있다. 첫째는 그의 회심을 신성한 주도권의 결과로 보았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꾸었다.” “갑자기”라는 용어는 그가 깊은 기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압도되었다는 느낌의 표현이었다. “나는 그렇게 완강하게 교황제도에 집착하는 상태에 남아 있었으므로 나를 그렇게 깊은 진구렁에서 건져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회심에서 자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말씀이 모든 것을 했다는 고백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가르치기 쉬운 상태로 굴복시켰다(docilitas: Teacherableness)는 것으로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주제는 기독교인의 생활에 관한 그의 저술에 계속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참된 경건은 노예적 준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主)로 경외하고 그 분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경건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 유순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되고자 하는 자발성이다. 셋째로 그의 수줍어하고 칩거하려는 성격이 그의 경건을 잘 드러내고 있다.<sup>70)</sup>

또한 칼빈은 바젤에서 기독교강요를 출판한 뒤에 파리로 왔다가 스트라스부르그로 가려고 했을 때 전쟁 때문에 직접 갈 수 없어서 체네바를 경유하게 되었다. 이 때 파렐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여지없이 저주할 것이다”라고 신랄하게 공격하였다. 그 때 칼빈은 “나는 파렐의 저주의 음성을 듣고 낙담해서 계획했던 스트라스부르그로의 여행을 포기하였다.”고 고백한다. 물론 파렐의 강요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뜻에 항상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다.<sup>71)</sup>

아울러 칼빈은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자 참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구원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과 함께 하나이며 양자론을 철저히 배격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 이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영원한 말씀으로 진실로 하나님이셨다. 생명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의로써 죄를 정복하고, 더 높은 권세로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굴복시키셨는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그리스도의 참다운 신성을 강조했고 성육신에서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닌 단지 베일 속에 숨기셨다. 마굿간에서 태어나시고 제스처로서가 아니라 겹세마네 동산에서 실질적으로 슬픔에 억눌렸고 도움을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것은 우리의 모든 불행들을 직접 경험해 보셔야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셨기 때문이었다.<sup>72)</sup>

69) 이은선, 「중세교회사 강의안」 (칼빈의 종교개혁 내용 중에서), 1998.

70) 이은선, 「중세교회사 강의안」, 1998.

71) 이은선, 중세교회사 강의안,



주지하다시피 칼빈의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 가장 긴 장은 ‘신앙의 주요한 훈련,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불렀던 기도의 장이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자명한 것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의 약속을 묵상함으로써 신앙을 훈련하고 또한 자신을 들어올려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함으로써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칼빈은 기도의 네 가지 규칙을 제시했다. 첫째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접근하라. “하나님의 위엄에 감동되어 기도하라.” 공허한 말의 나열이 아닌 경건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망이 하늘에 이른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을 구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그 분의 뜻에 일치되게 모든 것을 구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우리는 부족과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기도에서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하며 요구하고 간청하고 부르짖는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죄의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하고 일으킨다. 셋째로,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의 용서를 탄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넷째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우리는 그 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확정되고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에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을 통해 기도한다. 이러한 규칙은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공적인 기도에도 적용된다.<sup>73)</sup>

## B. 올바른 기도법칙

### 1.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경건한 초자연성이 요구된다.(첫째법칙)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초자연성 즉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르고 순수하게 주시하지 못하게 하는 육적인 근심과 생각을 버리고 전심 전력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정신 자체를 초월해야 하며 나아가 그 근심으로 인하여 더욱 열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sup>74)</sup> 따라서 우리는

72) *Inst.*, II. x iv.

73) *loc. cit.*

74) 맥시듀남은 「기도훈련」에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함께 바라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



옛 선진들이 깊은 구덩이와 죽음에 직면하여서도 근심하지 않고 주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시130:1, 히11)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정신이 이질적이고 외부적인 염려 때문에 이리저리 끌리거나, 하늘을 잊고 땅에 얽매이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염려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이성이 생각한 것을 일체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정신은 그 허무한 본성의 한계 안에 붙들려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순결한 상태를 목표로 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sup>75)</sup>

기도는 그 마음의 상태가 산출하며 자극하는 모든 감상(感想)들과 욕망들의 표현이므로<sup>76)</sup>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 바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기도에 바쳐야 하고, 또한 산만한 생각으로 주의가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은 아무리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도 불순한 생각이 어느새 스며들어 기도를 방해하거나 결국 결길로 들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의 친밀한 대화를 허락하셨는 바<sup>77)</sup>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섞음으로써 그 분의 크신 인자하심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치 못한가를 생각하여야 한다.<sup>78)</sup>

혹자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려 애쓰며,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드리는(왕상18:42) 경건함을 보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경솔하고 몰염치하고 무례한 태도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 감히 조르며, 어떤 망상이든지 닦치는 대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우매하여 사람 앞에서도 말하기를 심히 부끄러워해야 할 지극히 추한 욕망까지 감히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다. 이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행동은 세속 문인들도 희롱하며 미워하기까지 했지만, 이 최악의 세력은 언제나 강했다. 그래서 야심가들은 쥬피터(Jupiter)를 수호신으로 택했고, 인색한 자들은 머큐리(Mercury)를, 군인들은 마르스(Mars)를, 음탕한 자들은 아폴로(Apollo)와 비너스(Venus)를 택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도 친구끼리 농담하는 것보다 더 불법한 욕망이라 할지라도 관대하게 버려두는 사람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절한 대우를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시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그의 권력에 굴복시키며 억제시키신다. 그러므로 요한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요일5:14)고 한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기는 너무도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를 도우신다.(롬8:26) 그

---

지고 살아가게 한다.”며 칼빈과 같은 견해를 피력 하였다.(맥시튜남, 오성춘역, 기도훈련, 예장총회출판국, 1991. p.7.)

75) *Inst.*, III. x x. 4.

76)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V, p.367.

77) 본 논문, II.B.c.참조.

78) *Inst.*, III. x x. 4, 16. 칼빈은 기도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라고 하면서, 이 관념에 일체의 불경, 무준비, 경솔 등의 요소가 섞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였다.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태만을 감싸면서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떠맡기겠다는 불경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의 의무는 무기력하고 침체된 자기를 혐오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서도(고전 14:15) 동시에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한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고무하여 기도할 도우실 지라도 그것은 이 일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가를 시험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 2. 진정으로 부족을 느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둘째법칙)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드러서는 안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간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치명적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그들의 곤란에 대한 필요 대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 냉담하여서 여전히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자기의 구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막연하고 몽롱하게 자기의 부족을 느껴 기도를 하지만 그 느낌이 현실 문제가 되지 못하고, 그 기도가 자기에게 부족한 것에서 해방되어야겠다는 열의를 일으키지 못한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적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의 거짓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가증하며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무생각 없이 기도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갈망하며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원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 삼가야 할 일이다.<sup>79)</sup>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약5:13)고 구별하여 말하였다. 그러므로 너무나 게으른<sup>80)</sup>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필요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아픈 자극을 주셔야 한다.<sup>81)</sup> 이것을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라고 하였고,(시32:6) 우리에게 곤란과 불안과 공포와 그 밖의 시련이 압박 할 수록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듯이 우리는 더욱 그에게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무시로...기도’해야 한다고 한 것도 우리의 주변에는 온통 기도의 제목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목케 한다. 우리의 형편이 풍족하고 배고픔이 없으며 애통함이 없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딱

79) *Inst.*, III. x x. 6.

80) 데이비드 벤트리 테일러는 “기도의 능력은 거리가 멀다고 감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이, 연약함..., 정치적 변화나 제재... 따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은 태만으로 인해서만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 하였는바 바로 게으름이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켜며 기도의 통로를 막히게 하는 유일한 원인인 것이다.

81) *Inst.*, III. x x. 7.



한 조각이라도 맛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창고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 영적인 일이라도 이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는바 우리는 자기의 많은 죄를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죄와 벌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태만하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권고하며, 우리의 태만을 책망하는데 이는 끊임없는 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위선과 교활한 거짓을 기도에서 배제하며 멀리 추방한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신다고 하셨으나 자기들의 추악한 것을 즐기는 자들은 전혀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므로 바른 기도에는 회개가 필요하다. 즉 자기의 마음에 빗장을 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귀가 닫힌 것을 발견하며, 마음이 냉혹해서 하나님의 엄격한 처사를 도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관용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sup>82)</sup>

이사야서에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사1:15) 하였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렘11:7-)이라고 하셨다.<sup>83)</sup>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랑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시는 바 이사야서에는 유대인들에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그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났다”고 책망하시며, 야고보서에서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약4:3)이라고 경고하신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증하고 있는 바 “여호와와 손을 짚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사59:11). 그러나 죄는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59:2). 죄를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 기도의 확고한 법칙이 된다.

육한흠은 “주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큰 자도, 높은 자도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무시당하는 자, 세상 사람들에 의해 소외된 자들을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며,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마25:45),라고 하였고,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면 그 희생은 바로

82) *Inst.*,

83)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듣지아니하겠고...” 라 하심은 위선자들 즉, 일체의 진실성을 상실해 버리고서도 자기들이야 말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라고 선언하며 희생제물이나 금식기도, 그리고 기타 외형적인 종교의식을 통해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원했던, 그래서 선지자는 비록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고 온갖 기도를 드리며 모든 종류의 희생제물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거나 자신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선언(시145:18)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였다.(John Calvin, 『칼빈 성경주석』, 신복윤 등역, 성서교재간행사, 1978. 예레미야 p.261.)



이웃과 연결되는 희생이 되어야 하고 이웃의 고난을 함께 지고 고통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다.<sup>84)</sup>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공로 없고 깨끗지 못함을 의식하는 것을 포함하는 바, 욥이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욥42:6)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사야가 목시를 보고 놀라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사6:5)라고 말할 때에,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소서”(눅18:13)라고 할 때 이것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의 성격을 상당히 이해함으로 산출되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다.<sup>85)</sup>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준비할 때에는 먼저 자기의 부족함과 악한 행실을 혐오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거지와 같은 처지와 바른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3. 자기 신뢰는 버리고 겸손하게(셋째법칙)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겸손하게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주장하여 교만한다면<sup>86)</sup>,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수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으며<sup>87)</sup>, 하나님의 종들도 순종하여 모든 교만을 버리고 거룩할수록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더욱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된다. 다니엘은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84) 옥한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1993), p.197.

85)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V」, p.376.

86) 본인도 한때 사역의 목적을 위해 정한 기한내에 은혜를 충만히 받으리라는 목표를 세워 열심히 기도하였고, 또한 훈련과정으로서의 사역지를 구하였으나, 기도중에 이러한 기한의 정(定)함과 나의 목적을 위한 생각을 책망하시며(모순이 많구나.), 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적임을 알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즉, 나의 성장을 위한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주님을 바라고, 나의 탐심과 욕심(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으며, 모든 것을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며 깨달아야 할 것이다.

87) Bavinck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순종하였고 순종하기를 원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양식이다.(요 4:34) 그러나 그의 고난 속에서 그런 순종을 내보일 기회를 얻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줄곧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성향과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함과같이 그는 고난으로 거룩히 되었다.(히2:11)”고 말하고 있다.(Herman Bavinck, 김영규역, Magnalia Dei,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p.458.)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바 됨이니이다.”(단9:18-19)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면서 그로부터 피난처를 구하였다. 다윗도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시143:2)라고 고백한다. 이사야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랫동안이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있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시64:5-9)며 고백하였다.<sup>88)</sup>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의지한 확신은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에 주목해야 한다. 즉, 자기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아주시리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예레미야도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렘14:7)라고 하였는바 이는 바룩의 기도처럼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 기도를 쏟아놓으며 당신 앞에서 자비를 비옵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의로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비하시므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바룩 2:18-19, 3:2)고 고백한 것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비를 빌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sup>89)</sup>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준비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너그러운 화해를 얻기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sup>90)</sup> 하나님께서는 그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이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의 여러 곳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자들이 이 열쇠로 기도의 문을 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윗은 죄의 용서를 빌지 아니할 때에도 “여호와여 내 소시(少時)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했다.(시25:18)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매일 최근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은 죄까지도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타고난 부패성을 근거로 자기의 죄책을 경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생애의 죄들을 종합해서 더욱더 엄

88) *Inst.*, III. x x. 8.

89) *Inst.*,

90) 최유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간구하는 자의 심령이 오직 주만 의지하고 바라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리고 은혜를 받을만한 자로 여기시는 자에게는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한다.



격하게 자기를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자 한 것이다. 칼빈도 그의 예레미야 주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며, 그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진실성밖에는 없다.”고 하였다.<sup>91)</sup>

우리는 성자들이 항상 많은 말로써 자신의 죄의 용서를 빈 것은 아니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기도할 생각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언제든지 우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고자 하는 것을 발견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양심을 조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근심 걱정을 솔직하게 토로할 용기가 생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믿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무서워 떨 것이다.<sup>92)</sup>

여기에서 우리가 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즉,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만을 제거하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병든 사람이 자신에게 나타난 증세만을 치료하고 병의 원인 자체를 등한시하는 미련한 짓을 배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마9:2) 말씀하신 것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특히 원해야 할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의 은혜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화해의 열매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도록 교훈하신다.<sup>93)</sup>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물론 다윗도 “내가 경건하오니..”(시86:2)라고 하였고, 히스기야도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왕하20:3) 라고 했다. 그들이 이런 말로 표현한 것은 자기들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종과 자녀인 것이 증명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행위의 공로에 따라서 기도의 가치를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실하며 정직하며 무죄하다는 것을 바르게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이 의식을 - 그러한 확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한복음에서 눈을 뜨게된 장님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한 말은(요9:31)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온 것이며, 성경에서는 “죄인”이란 말이 보통 의에 대한 아무 욕망도 없이, 자기의 죄 가운데서 안주하며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동시에 경건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아무도 열렬하고 진지한 기도를 드릴 수 없으므로 이런 약속과 성도들의 증거는 부합하는데, 이 성도들의 증거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순결이나 무죄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91) 칼빈은 교황주의자들이 금식을 통하여 은총을 받을 만한 공로를 지니며 자기들의 공로로 삼으려는 것에 대하여 “그것들이 걸보기에만 번드르한 행사지만 그 금식의 목적은 악마적인 과오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면 금식이란 공로의 행위요, 고행의 사업이며, 일종의 화해작업이라고 그들이 규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하였다. (John Calvin, 신복윤 등역, 「칼빈 성경 주석」, <성서교재간행사, 1978 >, 예레미야 p.263.)

92) *Inst.*, III. x x. 9.

93) *Inst.*,



모든 종들이 바라는 것이 자기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이다. 즉,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는 그의 확신은 다만 하나님의 관용을 근거로 한 것이며, 자신의 공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94)</sup>

## 4.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넷째법칙)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용기를 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과 그의 공정한 벌을 느끼는 것은 외관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일이다. 그러나 자기의 악행에 눌러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뿐인 것을 생각하면, 두 가지 심리는 서로 잘 조화된다. 다윗은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시5:7) 그는 하나님의 인자에 믿음을 포함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경외를 간과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존엄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게 할뿐 아니라, 우리자신의 무가치를 깨닫고 모든 교만과 자기 신뢰를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신’이란, 모든 불안에서 해방되어 감미롭고 완전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평화로운 평안을 느끼는 것은 모든 일이 소원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즉 그는 현재의 곤경에서 신음하며 앞으로 다가올 곤란을 두려워하여 불안해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피난처를 얻으며, 언제든지 그가 도와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원하면서도, 그것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 부족함을 안타까워하실 것이다.<sup>95)</sup>

그러므로 기도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 기도를 위한 법칙이며, 이 법칙을 확립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과 가장 잘 조화가 되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 야고보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약1:5-) 여기서 그는 믿음을 의심에 대치시킴으로써 믿음의 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다. 즉,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얻는 것은 모두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지혜 없는 사람들은 그다지 주의하지 않으나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롬10:17) 바울은 믿음에서 기도가 시

94) *Inst.*, III. x x. 10.

95) *Inst.*, III. x x. 11. 옥한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허락하신 것은 마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무슨 기도제목이라도 가지고 와, 네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청원하면 내가 너의 얼굴을 봐서 들어주마’하는 말씀과 꼭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옥한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p.195)



작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것은 오직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96)</sup>

그러나 기도가 허락된다는 확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고, 그 자비가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다.(롬10:14)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가르친다.(엡3:12)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신념을 두 손으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그에게로 가는 길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sup>97)</sup> 기도를 제정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굴거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높이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한 후에, 자녀가 곤란한 문제들을 부모 앞에 털어놓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수없이 많은 우리의 죄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도록 견딜 수 없는 아픈 자극을 줄 것이다.<sup>9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 주께서는 우리의 불경한 완고함을 책망하신다. 시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시50:15) 함과 같이 경건 생활의 의무 중에서 기도처럼 성경에서 자주 명령하는 것은 없다. 칼빈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므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하며,<sup>99)</sup> 그의 강요 초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간구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진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된

96) *Inst.*, III. x x. 11.

97) 우리는 주변에서 기도의 성공사례를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실제 기도해보라. 처음에는 대단한 각오로 중보기도를 시작하였지만 얼마되지 않아서 낙담이 되어 포기하려는 유혹을 경험하게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스스로 자문하면서 어떤때는 밤새도록 주여!, 또는 아버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반복하여 보지만 그럼에도 가슴이 냉냉하고 낙담이 될 때가 많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경성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간절히 간구하라는 하나님의 신호(sign)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마음에 그분의 평안과 위로가 임할 때까지....

98) *Inst.*, III. x x. 12.

99)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이 전파될 경우 세상이 왈칵 뒤집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교사들이 세상의 증오를 피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은 그들이 뜻밖에도 원수를 보기도 전에 겁을 집어먹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뜻에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결코 새롭거나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본을 통해서 그들을 확신시켜 주고 있다. 이것은 그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데 그의 인격을 대표하는 우리는 세상의 총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말한다. (John Calvin, 신복윤 등역, 칼빈성경주석, 요한복음 p.523.)



다”고 말하고 있다.<sup>100)</sup> 그러나 위선자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모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교만한 태도로 무시하며 하나님의 친절한 초대를 의심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주요 부분을 빼앗는다. 옛날 사람들이 모든 거룩한 일은 제물을 바치는 데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거절하시고(시50:7-) 사람들이 곤란한 때에 자신을 부르는 것을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하셨다.(시50:15)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비할 데 없는 경솔한 짓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히 길을 열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보다 앞서 가시며, 그들이 따라오기를 원하시며 그가 친히 명령하시는 아름다운 곡조에 감화되어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슌13:9) 특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찬미이다. 우리는 이 찬미의 내용을 믿고 모든 장애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시65:1-2) 하나님께서 이런 찬미를 받으셨다는 것처럼 기쁘고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찬미는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허락하시는 것이 그의 성품에 가장 잘 맞는 일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 때문에 다윗은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삼하7:27),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시145:19)라고 고백하고 있다.<sup>101)</sup>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신다.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사 65:24)라고 친히 선포하셨다. 이렇게 예리한 자극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태만하며 머뭇거릴 때에 우리의 배은 망덕이 얼마나 완고한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며(벧전5:7), 존엄하신 아버지를 향하여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sup>102)</sup>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실하며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고 겸손하며 믿음을 가지되, 거짓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

10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초판)』, p.184.

101) *Inst.*, III. x x. 13.

102) 전용복은 능력있는 중보기도를 위해 여섯가지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첫째로,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하며 그 분의 도우심과 임재가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바 찬양 후 성경을 통독하며 그 말씀 안에 굳건히 서도록 해야하고, 셋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과 간구한 것이 응답되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며, 넷째는 끈기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다섯째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도제목 보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간구와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음에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라고 말한다.(생명력있는 중보기도, 두란노, 2000. pp.80 -81)



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감당할 자가 못된다고 하는 한편(창 32:10),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더 큰 일을 구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구실이 무엇이든 간에 곤란한 때에 하나님께 피하여 그의 얼굴을 찾으며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음으로 마치 우상을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예를 빼앗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의 근원 이심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동안은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순종 이상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 5. 불완전한 기도도 들으심

성경에는 불완전하고 불법한 욕망의 기도도 관대하게 들으시는(요일5:14)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되는 바 요담(삿9:20)과 삼손(삿16:28)의 경우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칼빈은 말하기를 “보편적인 법칙은 개개의 예에 의해 폐기되지 않으나 간혹 특수한 충동을 받은 소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배려가 있었다. 제자들이 엘리야의 예를 따르도록 경솔하게 청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도 모르는구나’(눅9:55),”고 힐문하셨다.<sup>103)</sup> 이와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라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은 아니며 실례를 보더라도 성경의 교훈은 분명한 증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불행한 사람들을 도우시며, 부당한 고통을 받아 그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신음을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의 불평과 호소가 드러질지라도 비록 그들에게는 티끌만큼도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그는 그의 심판을 단행하신다. 결과적으로 불신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을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불신자들의 호소도 때로는 유익한 것을 보고 진정한 경배자들이 더욱더 기도하도록 격려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아합이 회개하는 체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말을 하신 것을 기억한다.(왕상21:29)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 분의 노여움을 풀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는 곧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려는 배려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시편 106편에 이스라엘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완악한 본성으로 돌아간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눈물은 거짓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sup>104)</sup>

한편 아브라함과 사무엘의 경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셨는데도 소돔을

103) *Inst.*, III. x x. 15.

104) *Inst.*,



위해 기도했고(창18:23), 사무엘은 분명히 금지한 명령이 있었는데도 사울을 위해 기도했으며(삼상15:11), 예레미야는 수도가 멸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렘32:16-). 비록 그들의 기도는 수납되지 않았으나 그들에게 결코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무가치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의 보편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었다. 어거스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일을 기원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 하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그 뜻은 감추어 있고 변함없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현명하신 결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주시는 것이다.”고 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 사건들의 결과를 조정하셔서, 믿음과 과오가 섞여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지라고 하였으나 완전한 믿음이나 회개가 없을 때와 열성과 올바른 기원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거부하시리라는 것이 그 원칙들의 뜻은 아니다. 칼빈은 기도가 경건한 자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대화라고 말하나 우리는 경외와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잡다한 요구를 함부로 늘어놓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를 넘어 탐내는 일이 없도록 하며, 생각을 고상하게 하여 하나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하나님의 존엄성이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다.<sup>105)</sup>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의 품에 내던지는 것밖에 달리 위로를 얻을 길이 없어 행한 무절제한 불평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관용하시며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신다. 이러한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기도할 자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sup>106)</sup>

그들은 또한 회개에 있어서도 죄를 짓는다. 왜냐면 그들의 냉담한 자기와 재차 싸워야 하며, 자기의 부족과 불행에 대한 느낌도 그다지 절실하지 않아서 열렬한 기도를 드릴 만한 자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자주 기도에서 멀어지고 거의 사라져 버린다.<sup>107)</sup> 따라서 이 점에서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무기력하고 불완전한 기도, 또는 중단되고 막연한 기도는 거부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이 높이 들릴 때에 한해서 그의 기도는 합당하다는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의 마음에 심어두셨다. 여기에서

105) *Inst.*, III. x x. 16.

106) 전용복은 중보기도자가 가져서는 안될 일곱가지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바, ① 자기 의(義)를 드러내지 말라 ②자신이 원하는 바 대로 간구하며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라 ③육체의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 ④감상주의를 버리라 ⑤자신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거나 자랑하는 등의 영적 자존심을 버리라 ⑥치유를 목적으로 기도팀에 합류하지 말라 ⑦자원함이 아닌 강압적으로 기도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생명력있는 중보기도, 두란노, 2000. pp.91-94)

107) 작금의 도시 학생들이나 교인들의 생활환경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풍족하며 아쉬움이 없어 기도의 절실함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경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불행에 대비해야만 한다.



손을 드는 형식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용서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기도에 능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51:17)라고 말하면서도 제사의 십분의 일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사람은 항상 이중의 용서를 빌어야 한다. 즉, 많은 죄를 지은 줄 알면서도 그 느낌이 미약해서 자기를 혐오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어야 할 정도로 절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는 자기의 죄를 올바르게 슬퍼하고 완전히 낙심하여 그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경우에 그들은 심판자이신 그의 진노가 자기들에게 내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결점을 용서해 주신다. 그 분께서는 마치 그들의 믿음을 소멸시키기로 굳게 작정하신 것처럼 어려운 시련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그러나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노력해서 자기의 결점을 시정하며, 기도의 완전한 표준에 매일 접근해야 한다. 비록 모든 장애를 배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분투 노력할 때 우리의 기도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sup>108)</sup>

---

108) *Inst.*, III. x x. 16.





## 제 IV 장 칼빈이 바라본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 A.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공포감에서 해방시키려고 친히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대언자와(요일2:1) 그의 앞에 있는 중보자로(딤후2:5; 히8:6, 9:15) 삼으셨다. 이는 그리스도의 인도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실 이유가 없는 것과 같이 아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sup>109)</sup>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sup>11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없으며 자기의 무가치를 느껴 도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영광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변화시켜 주시기까지는 우리는 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요16:26)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청하는 사람들은 완고하게 그의 명령을 멸시하며 그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sup>111)</sup>

### B.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는 자신의 중보에서 피난처를 구

109) 칼빈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요14:16)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그의 부재중의 느낄 슬픔을 달래시면서 동시에 비록 몸은 떠나있겠지만 그의 영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도움이 없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다. 여기에서 그는 성령을 가리켜 ‘아버지의 선물’로 부르는데 이는 그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얻을 선물이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하면, 그는 또한 하나님이기때 이 은혜를 직접 베푸신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두 말씀은 참되고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였다.(John Calvin, 요한복음 주석, pp.492-493.)

110) *Inst.*, III. x x. 17.

111) *Inst.*,



하라고 명령하신 그 때의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처음부터 중보자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가르치신 것을 보면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은 제사장 뿐이었고, 그는 두 어깨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메었고, 같은 수효의 보석이 달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갔다.(출 28:9-21) 그리고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성전 뜰에서 있었으며, 제사장과 함께 기도를 올렸고 제물까지도 드리며 기도를 강화했다. 이 율법의 의식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며, 이 분이 우리를 그 두 어깨에 메고 그 가슴에 달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가 실현되도록 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불결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피를 뿌려 정하게 하신다고 율법의 의식은 우리에게 가르친다. 성도들은 무엇을 얻고자 할 때에 제물에 소망의 근거를 둔다. 기도를 용납하게 하는 것이 제물이란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한다.(시20: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중보로 노여움을 푸시고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sup>112)</sup>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새로운 시기를 정하셨는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요6:24)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제자들이 중보자의 직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은 모두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승천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이전보다 더 확실한 변호자가 되시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sup>113)</sup>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는 제자들을 특별한 은혜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중보자의 직분을 취하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받지 못한 더욱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을 가르치셨다.<sup>114)</sup> 만일 우리를 위해 예정된 참으로 헤아릴

112) *Inst.*, III. x x. 18.

113)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말하기를 “... 사도들은 아마 율법에 규정된 기도의 원칙을 지켰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조상들은 중보자 없는 기도는 올리지 않았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형태의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들은 전체 백성의 이름으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보았으며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중보자의 관여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모하고 무익하다는 원칙은 그들의 여러 가지 믿음의 원칙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가 중보자라는 점을 그의 제자들에게 충분히 밝히셨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너무도 빈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제대로 그들의 기도를 그의 이름에 맞게 드릴 수 없었다.” 고 하였다. (J. Calvin, 칼빈 성경주석, 신복운 등역, 성서교재 간행사, 1978. 요16:24, p.46.)

114) 박형룡은 플트르교회를 인용하여 “다윗의 타락과 베드로의 심원한 타락을 들어 고백하기를, 회심자들의 생활을 그 자신들의 고안에 버려두면 무엇이든지 능히 생긴다. 그들 자신들은 능히 은혜에 남아 있지 못한다”고 한 것은 회심자들의 견인을 위한 대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함을 암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완고한 교만과 불순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sup>115)</sup>

### C. 그리스도께서 신자 상호간에도 중보 되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이시며, 이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른 길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로 제정되었고, 그의 중보에 의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신다. 동시에 성도들은 서로 중재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상호의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한다.<sup>116)</sup> 사도가 이런 기도를 언급했으나(딤후2:1) 신자들의 상호 중재 기도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는다. 우리들이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자발적으로 아무 이해타산이 없이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감정이 넘쳐 중보기도로 나타나는 것같이 그런 기도는 또한 한 머리와 관련이 있다. 이런 기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지 않으면 아무 기도도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하는 모든 중보기도는 저 유일한 중보기도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확정된 원칙으로 여겨야 한다. 이 점 때문에 우리는 배은망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각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호소하는 것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sup>117)</sup>

### D.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신 중보기도는(요17:) 그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때에도 그대로 드리실 것이다. 이 중보기도는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며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보전된다.<sup>118)</sup>

---

시한 대목이라면서,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속하는 이적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 중부의 효과로 이 은혜의 이적이 우리 생활에 나타날 것을 깊이 믿고 용감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였다.(박형룡, 박형룡 저작전집 V, p.400.)

115) loc. cit.

116) *Inst.*, III. x x. 19.

117) *Inst.*,



그런데 어떤 케변가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일정기간만 유효하시고 영원한 중보의 직책은 제자들 즉 종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작은 영광의 일부라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빼어내는 자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2:1)고 일축하였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8:34)고 말한 바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당부하면서 첨언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중보도 한 분이시니”(딤펴전2:5)라 하였다.<sup>119)</sup>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의하여 서로 다른 사람을 권고한다. 그러나 진정한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다.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은 없으나,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설명한다.<sup>120)</sup> 사도바울도 신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롬15:30; 엡6:19; 골4:3) 또 그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자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유한다. 그 이유로서 그는 “여러 지체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고전 12:25-)라고 한다. 이렇게 모든 지체가 지상에서 애써 일하면서 서로 다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들보다 먼저 승천하신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가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요일2:2)이다. 만일 바울이 중보자였다면 다른 사도들도 그러했을 것이요, 만일 중보자가 여럿이라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말을 틀린 것이다. 어거스틴은 다른 구절에서 “그러나 당신이 대제사장을 구한다면, 그는 하늘 위에 계신다. 그는 거기서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또한 당신을 위해서 땅에서 죽으셨다.”(히7:26-)고 하였다.<sup>121)</sup>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서 애원하신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때에는 그의 죽음의 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 기도로서의 효과를 가진다고 이해한다.(롬8:34)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면, 이 세상의 종말까지 홀로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며, 백성은 멀리 바깥뜰에 머물러 있다고 이해한다.

---

118) 박형룡, 「박형룡저작전집 V」, p.399. p.491(요14:13)에도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중보자의 임무를 더욱 더 분명하게 수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119) *Inst.*, III. x x. 20.

120) *Inst.*,

121) *Inst.*,



## 제 V 장 「주기도문」에 나타난 칼빈의 중보기도 이해

철학자 플라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그들이 말하는) 기도를 드리는 기술이 없는데다가 성취되면 도리어 자기들에게 해로운 일을 구하는 것을 보고서 그는 어떤 고대 시인의 말을 빌어,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한 것을 결정한 바 “제우스 신이여,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상관하실 것 없이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좋지 못한 일들을, 비록 우리가 원하더라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명령하소서.”<sup>122)</sup> 참으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짓이라고 판단될 만한 총명이 이교도에 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불행한 일이다. 성령이 바른 기도 양식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롬8:26)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때에 반드시 위험한 일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은 그의 입으로 가르쳐주신 오류가 전혀 없는 기도로서 이 기도를 배운 특권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구할 것을 그 분께 아뢰며 위안을 얻어야 한다.<sup>123)</sup>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는 여섯 가지 기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주기도문은 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시 하지만, 처음 세 기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배려되었다.

### A.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아버지”, 기도는 하나의 대화인 만큼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르게 된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만이 가능하다.(요1:12) 예수께서는 아버지인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하심을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눅15:11-)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의 것임을 말씀해 주셨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와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교제를 나눌 때 기도는 시작된다.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아

122) Plato, 「Alcibiades II」. 142E, 143A, (LCL Plato VIII. 249) 재인용.

123) *Inst.*, III. x x. 34.



버지 되심을 아는 지식 속에 기도의 능력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sup>124)</sup>

칼빈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격려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은혜를 모르고 반역하며, 사악하고 완고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그분의 자비를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는 단지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모든 아버지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다정한 아버지가 되신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그러한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을 더욱 강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부르기를 원하신다.<sup>125)</sup>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양자 된 것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큰 소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갈4:6, 롬8:15)

또한 칼빈은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와 교우들과의 친교를 세워주는 호칭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받은 교훈은 개인이 각각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 아니고 모두 공동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우리들 사이에 커다란 형제애가 있어야 함을 가르친다.<sup>126)</sup> 그리고 한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아버지가 되시며(마23:9) 우리에게 돌아오는 좋은 것이 모두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를 서로 분리시키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기꺼이 또 진심으로 서로 나누지 못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하늘에 계신”이란 말씀에서 우리는 그 분이 율타리처럼 둥근 하늘 안에 둘러싸여 갇혀 계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그가 어떤 특수한 공간 내에 갇히신 것이 아니고 만물에 편재하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둔한 우리의 지성은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보다 더 숭고하거나 존엄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란 말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다.<sup>127)</sup>

칼빈은 주기도문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의 형식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구해도 되는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한 도표에 나열한 듯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하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해결하기 힘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부모의 보호 아래로 달려가 피난처를 얻는 것과 같이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찾으라고 경고하시며 재촉하신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124) Andrew Muray, 김성환역, 「그리스도의 기도학교에서」, (생명의 말씀사, 1990), p.40.

125) *Inst.*, III. x x. 37.

126) *Inst.*, III. x x. 38.

127) *Inst.*, III. x x. 40.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다.”고 하였다.<sup>128)</sup>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모본인 것이다.

## B. 주기도문의 완전성

**첫째 기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반드시 최고의 존경을 지녀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이제까지 너무도 흔했던 신성모독이며, 이것이 지금도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 우리 사이에 조금이라도 경건함이 있었다면 이런 기원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이 기원의 또 다른 목적은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불신과 불경이 제거되고 소멸되며, 이 거룩함을 흐리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모든 비방과 조롱이 추방되면 모든 모독 행위를 잠잠케 하시는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더욱 더 빛나시게 되는 것이다.<sup>129)</sup> Barth는 이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해석하며,<sup>130)</sup> 오늘날 많은 주석가들도 “거룩함”이란 본래 하나님의 주요한 속성으로서 그것이 인간의 악의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고 거룩함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131)</sup>

**둘째 기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

이 기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중심적인 메시지였던 것과 같이 주기도문의 중심적인 기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덧붙여진 송영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기원 중 “나라”만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재 천명된다.

칼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인간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과 지상의 생활을 경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로 맹세하며 하늘 생명을 얻으려고 애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영역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128) *Inst.*, III. x x . 34.

129) *Inst.*, III. x x . 41.

130) K. Barth, 『*Prayer according to the Catechisms of the Reformation*』 (ET)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1952), p.44.

131) R.E. Brown, 『*The Pater Noster as an Eschatological Prayer*』, *New Testament Essays* (Image Books, New York, 1968)) p.230.



서는 그분에게 향거하는 모든 육신의 정욕을 그분의 영의 힘으로 바로잡으시며,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분의 규율에 맞도록 만드신다.”고 하였다.<sup>132)</sup> 이 기도는 분명히 우리를 세상의 부패에서 건져내게 하려는 것인데, 이 세상의 부패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번창하지 못하게 한다. 이 기도는 동시에 육을 죽이려는 열정을 불붙여야 한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그의 나라를 확산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이다.<sup>133)</sup>

**세 번째 기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리이다.”**

이 기원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sup>134)</sup>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그의 명령을 이행하는데 열심을 기울인다.(시103:20)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 아무 것도 행하지 않으며, 천사들도 온전히 평화롭고 정직한 생활을 함께 하고있는 것과 같이 지상 생활도 이런 표준을 따라 모든 교만과 사악이 종식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sup>135)</sup>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여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18:14)하여 그의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그에 대한 비유로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마18:12-13; 눅15:1-7)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기쁨(눅15:8-10),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는 기쁨(눅15:11-32) 등을 들고 있다.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 기도에 의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배워 하나님께서 그분의 결정대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심령을 창조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는 주기도문의 처음 세 기원을 살펴보았다. 이 간구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자신이나 자신의 이익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열렬하고 성실하고 철저하게 헌신한 종과 자녀임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sup>136)</sup>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도는 우리 자신의 일에 대한 것으로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서는 최

132) *Inst.*, III. x x. 42.

133) *Inst.*,

134) *Inst.*,

135) *Inst.*, III. x x. 43.

136) *Inst.*,





고의 완전성이 우리 눈앞에 제시되지만,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의 무력한 상태가 제시된다. 이와 같이 두 부분은 서로 훌륭하게 조화되며,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곤경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한다.<sup>137)</sup>

### 넷째 기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원은 우리를 위한 처음 기원이다.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다.(고전10:31)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의도 없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 것도 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보다 더 합당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롬14:7-9)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화와 섭리에 맡겨 그분이 먹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육신까지도 그분의 보호와 지도하에 두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기대함으로써 이런 사소한 일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해야 된다고 명하셨다. “일용할”이란 말은 무상한 것에 대한 무제한적인 욕망을 제한한다. 소유가 필요 이상으로 풍부할 때에 우리는 쾌락과 오락과 허식과 기타 사치에 그것들을 허비한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쓰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양육하시니 내일도 반드시 그러실 것을 확신하라고 하신다. 또한 이 기원은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것일지라도 주께서 시간마다 그것을 조금씩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쓰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교훈하고 있다.<sup>138)</sup>

### 다섯째 기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말로 모욕하는 등,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해를 입힌 모든 사람을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같이, 우리도 용서받기를 구한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이 우리가 남을 용서하니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마치 이것이 우리가 용서받을 조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다.<sup>139)</sup>

137) *Inst.*, III. x x. 45.

138) *Inst.*,

139) *Inst.*, III. x x. 45.



이 기원의 또 다른 의도는 주께서 그 자녀들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시려는 것이다. 즉 복수심이 강렬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미약하여 항상 적의(敵意)를 가지고 행동하며, 자기들에게는 오지 않기를 원하는 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조장하는 사람들을 자녀들 가운데서 제외하시려는 것이다.<sup>140)</sup> 주기도 본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마6:14-15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주기도문에서의 용서의 원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가 일상의 생활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할 때에 가져야 할 정신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141)</sup>

### 여섯째 기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반드시 끝없는 싸움과 어렵고 괴로운 투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기원에서 우리는 승리로 얻는데 필요한 무장을 갖추며 보호받기를 구한다. 이 기원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뿐만아니라, 성령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완화시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굽히시며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은 사탄의 모든 전략과 난폭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하다.<sup>142)</sup> 칼빈은 여기에서 유혹(시험)을 원편과 오른편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구분하는데 오른편에서 오는 것은 소위 재물, 권세, 명예 같은 것이고, 원편으로부터 오는 것은 소위 빈곤, 치욕, 경멸, 고난 등이라고 하였다.<sup>143)</sup>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의 육욕이 일어나거나 마귀의 간계에 의해서 제시되는 두 가지 시험과 싸워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그의 힘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입 시키든간에 그 악한 적들의 모든 공격에 대항하여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든 일의 결과가 어떤 쪽으로 기울 어지든, 우리는 그것이 선한 결과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요컨대 우리가 기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정복되거나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적대 세력에 대항해서 주님의 힘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다. 이 기원의 목적은 우리가 주의 돌보심과 보호로 안전한 상태에서 모든 유혹에 굴복함이 없이, 오히려 죄와

140) *Inst.*,

141) 나채운, 「주기도 사도신경 축도」, (장신대출판부, 1993) p.65. 재인용.

142) *Inst.*, III. x x. 46.

143) *Inst.*,



##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죽음과 지옥의 문과(마16:28) 마귀의 나라 전체를 건디어 승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sup>144)</sup>

이와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기원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공개적이며,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고자 신자 상호간에 교제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초대교회는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이런 의미있는 주기도문을 진실된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모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외웠던 것이다.<sup>145)</sup>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매일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림으로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서 더욱 어지럽고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144) *Inst.*,

145) 박인수, *op. cit.*, p.69.



## 제 VI 장 그릇된 중보기도

### A. 칼빈이 배척한 성자(聖者)의 중보 교리

칼빈이 성자(聖者)들의 중보기도에 대한 그릇된 교리를 지나칠 정도로 배척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는 당시 교황제도하의 성도들이 성자들의 중보기도에서 피난처를 구하며 성자들이 사람들의 구원까지를 결정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그 앞에 기도하는 무서운 신성모독을 감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매의 정도가 심하여 지금은 명백히 미신으로 기울어졌지만 성자들의 중재를 생각하게 된 후로 사람들은 각 성자에게 특별한 기능을 돌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의 수에 따라 신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구의 수에 따라 신을 정한 것과 같이 - 어떤 때는 이 성자에게 또 어떤 때는 저 성자에게 중재를 기원하였다. 이들은 성자들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매우 다른 것으로서 각 성자는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적인 편애를 품었다.

이런 무신앙(無信仰)의 더 크고 기괴한 일은 그것이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타 성자들의 조각이나 그림 앞에 엎드려 그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중얼거림에 대하여 - 고대 칼타고 회의에서 제단 앞에서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였음에도 - 사제들은 이런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득의 냄새를 맡고 그것을 시인하고 장려하면서 이런 추악한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sup>146)</sup>

그런데 이들의 중보의 기초가 성경의 권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이 기도했다는 기사가 성경에 나올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말도 한다. 그러나 현세를 떠난 성자들과 천사들을 굳이 비교한다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 되었고 구원을 얻을 후사를 섬기는 임무를 받았으며(히1:14)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는 임무가 위촉되었지만, 성자들은 받은 일이 없다. 에스겔서에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그 자녀를 구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고 하였는 바, 그러므로 성경에 분명히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문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sup>147)</sup>

이와같이 죽은 성자들은 지상의 근심걱정에 관계하지 않는바 그들 역시 그들의 안식을 버리고 지상의 근심 걱정에 끌려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146) *Inst.*, III. x x. 21.

147) *Inst.*, III. x x. 23.



더욱 불가하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하여(딤후2:1-2) 성자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신자 상호간의 기도는 그들이 서로 곤란과 짐을 나누는 동안 그들의 사랑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며, 이것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교훈이 있고, 주의 약속도 있기 때문이다. 주의 교훈과 약속 이 두 가지는 언제든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죽은 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유들이 하나도 없다. 주께서 그들을 우리에게서 데려가셨을 때에, 그들과의 추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들에게도 우리와의 접촉점을 남겨놓으시지 않는다.<sup>148)</sup>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옹호하려고 성경에 있는 다른 증거들을 가장 사악하게 왜곡하는바, 그들은 야곱이 자기 자손들도 자기 이름과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다고 한다.(창48:16) 그러나 그들은 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른 것이(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선례는 성자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금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매한 이들은 미련하게도 야곱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과 그 부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형식까지도 유치하게 오해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들은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이름을 퍼뜨리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후손이 완전한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후손들이 최고의 복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혈족으로 인정되기를 기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들에게 언약을 계승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후손들로서는 이런 기억을 기도에 삼입함으로써 죽은 이들의 중재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언약을 생각하시도록 한 것이다.<sup>149)</sup>

한편, 성도들이 조상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언서에서 교회가 이구동성으로 증거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사63:16) 하면서,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언약의 유익에만 유의하였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주 예수께서 계시고, 그의 손으로 영원한 자비의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언약을 확인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다른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땅히 드러내야 한다.<sup>150)</sup>

혹자는 성자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삼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약5:17-18) 이

148) *Inst.*, III. x x. 24.

149) *Inst.*, III. x x. 25.

150) *Inst.*, III. x x. 25.



는 엘리야의 경건하고 순수한 기도의 무한한 힘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과 호의를 악의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어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에게만 한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라서, 너그러우심에 싫증을 느끼지 않으시며 힘이 다하는 일이 없으시며, 그 자신의 성품으로 인하여 존귀를 받으실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대한 호의와 신의를 예시하시며 증명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기대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속이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sup>151)</sup>

이와같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관해서, 성경이 가장 중요시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는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모든 제물은 그 다음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기도를 다른데 드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은 올바른 기도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기도는 즉시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 어느곳에 보더라도 영예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중보하는 직무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특유의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곧 중보자가 성결케 하시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호간의 의무를 다하라고 자주 권하지만, 죽은 사람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사실,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약5:16) 하면서, 두 가지 권고를 결합하여 언급함으로 무언중에 죽은 사람을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기초한 기도(롬10:14,17) 외에 상상에 불과한 중보기도는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sup>152)</sup>

## 개혁주의 학술원

### B. 현대 신학자들의 기도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플라톤은 “철학자의 삶이란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肉)이 완전히 사멸할 때까지, 육을 죽이는 일에 계속 노력하고 연단하는 것이라고 더욱 올바르게 말할 수 있다.<sup>153)</sup> 그러나 스콜라학파의 퀘변가들이 회개에 관하여 말하기를 “회개한다는 것은 이전에 지은 죄들로 인해 슬피 우는 것이요, 울어야 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또 그것은 과거의 악행에 대하여 통회하는 것이요. 통회해야 할 행위를 다시 저지

151) *Inst.*, III. x x. 26.

152) *Inst.*, III. x x. 27.

153) J. Calvin, 「기독교강요 초판」, 양낙홍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p257.



르지 않는 것이다. 또 그것은 자기가 범죄했다고 뉘우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응징하는 일종의 서글픈 보복이다. 또 그것은 자신이 저질렀거나 동의했던 악행에 대한 영혼의 쓰라림과 마음의 슬픔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회개를 교묘하게 정의하여 마음의 통회, 임의 고백, 그리고 행위의 속죄로 구분한다. 왜냐면 진정으로 참회는 해도 고백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고백없는 회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154)</sup>

바울은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살전5:17- 18, 참고 딤후전2:1,8), 모든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에서든지 만사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모든 일로 그를 찬양하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그가 바란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간구하도록 결코 패함이 없는 이유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sup>155)</sup>

그러나 현대 신학자들은 “아직도 기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최근 인간 지식의 발달 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회의주의자들은 말하기를 “기도는 자아 신뢰의 진화된 형태”라 하였고, 마리오 퍼클리시는 “모든 간구는 마술의 기미가 짙고 이기적인 행복설을 신봉하는 자들이 할 짓이라”고 하였으며<sup>156)</sup>, 자유주의 신신학은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범 뿐으로, 또는 독특한 인물로만 추대함으로 그의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되심을 거부하였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를 하나님의 최고 계시자로 높여 그가 체험한 종교생활을 그대로 체험하기를 힘쓰나 그를 종교의 대상으로 그에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은 반대하였다.<sup>157)</sup>

헤리 에멀슨 파스딕 박사의 유명한 설교 ‘예수를 예배함의 위험’ (Harry Emerson Fasdick, The Peril of Worshipping Jesus)은 예수에게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를 거절하는 주지의 강설로 그는 심지어 말하기를 “세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를 제거하기를 시도하였으니 첫째는 그를 십자가에 못박음으로요, 둘째는 그를 예배함으로였다... 그는 반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배 받는 것을 두려워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예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심을 부인하였다.<sup>158)</sup>

하일러는 “헬라철학에 대하여 기도가 걸림돌이었던 것처럼 코페르니쿠스와 칸트로 대표되는 현대사상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다.”고 하였다.<sup>159)</sup>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분명하게 인정되었던 시대에는 간구로써의 기도가 쉬웠고, 문명이 인간 생활의 모든 영

154) J. Calvin, 「기독교강요 초판」, pp.259-260.

155) J. Calvin, 「기독교강요 초판」, p.163.

156) 이운근, 「기도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3), p.35.

157) 그들은, 예수께서 기독교의 창립자 되신 것은 그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까닭이므로 기독교의 본령(本領)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종교생활을 유지함에 있고 그를 종교의 대상으로 함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박형룡박사 저작전집 V, p.374.)

158)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V」, p.374.

159) Friedrich Heiler, 「Prayer」 (Oxford University Press, 1933), p.362.(와인스피어. p.119. 재인용)



역을 거의 지배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발자취보다는 인간의 노력이 더 많이 우리 주변에 발견되었던 것이다. 기도의 위기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며, 이들은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현실세계로부터의 도피로 보았고, 신앙인들로 하여금 이웃과 사회를 위한 책임을 소홀하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인리히 오토(Heinrich Ott)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상관하고 매일 같이 우리 자신의 말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말과 생각속에서 하나님과의 접촉을 발견하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게르토 오토(Gerd Otto)의 말을 인용하여 기도로 신의 간섭이나 도움을 기대한다는 것은 고대 후기의 것으로 기독교에 독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기적이거나 어떤 상황을 마술적으로 고치려는 단계를 지났다는 것이다.<sup>160)</sup> 그는 다시 쉴레(Dorothee Solle)의 글을 인용하여 “기도는 자신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명상적인 자기와의 대화”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이성과 언어를 주셨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혼잣말로 웅얼거림을 좋아하실까? 이것은 기도를 청취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기도를 합리적으로 해석키 위한 그의 모색이었다.<sup>161)</sup> 그에게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없으며 자신에게 말하고 말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해답을 주는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62)</sup>

또한, 성공회 주교 로빈슨(J.A.T. Robinson)은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에서 볼트만의 비신화론을 들어 기독교의 신에 대한 이해에 있어 현대인은 초자연적이며 종교적인 이해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음을 지적하여 종래의 전통적 유신론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다. 신이 ‘저 위에’ 계시거나 ‘저 멀리 밖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우주 여행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본회파의 기독교론에 근거하여 “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간의 모습속에서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기록’의 소재가 ‘거룩한 곳’에 있지 않고 ‘행동하는 삶’ 바로 ‘세속’의 한 복판에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63)</sup> 이는 칼빈의 간구와 응답으로써의 기도를 거부하고 소외계층에 동참하는 그 자체

160) Heinrich Ott, 김광식 역,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기독교서회, 1973), p.118- 119.

161) 본회파(Dierich Bonhoeff)도 “우리의 필요한 것과 간구를 이미 다 아시는 아버지께 결코 시위적일 수 없다. 또 기도는 울부짖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시위적 행동이라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은밀한 기도를 높이 평가하는 듯 보이나 문제는 ‘사람이 골방에서 훌륭한 시위를 할 수 있으니 자신이 기도하는 자며 동시에 기도를 듣는 자가 되는데서 목적을 달성한다.’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할 필요도 상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고 오토와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본회파, 허혁역, 나를 따르라, 대한기독교서회, 1987. p.152.)

162) 유광웅, 「칼빈의 기도론과 현대기도론 비교연구」, (아세아연합신대원, 1990), p.24.

163) 몰트만(J.Moltmann)은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탄식하고 상처입은 자들과 함께 외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기도를 의미한다고 함으로 그 역시 행동하는 것, 일 자체를 기도로 보았으며, Urban T. Holmes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기도이다”고 하였고, Charles Elliott역





를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이해하였다.

이정남은 ‘역(易)과 기독교 사상’에서 역과 기독교의 만나는 점을 찾아 기도에 있어서 침묵을 강조했다. 즉, “기도는 하늘을 향하거나 기도하는 자의 외부를 향해서는 안되며, 오직 자기 자신의 내적 자아 곧 역이 내적 현존을 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신이 인간 밖에 있지 않고 인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을 향해야 한다. 기도하는데 가장 알맞는 태도는 집중하는 마음이다. 실제적인 기도는 자기 자신의 실존의 심연에 대해 스스로 집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침묵들도 침묵 속에서 역의 내적 현존을 향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인간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결론은 과오”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기도는 명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모호하고 막연한 것이 구체화되고 성숙해지는 인격이 될 수 있다고 함으로 기도를 자기 수양의 방법으로 이해하였다.<sup>164)</sup>

또한 포이에르바하(Feuerbach)는 확실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힘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소리 높여 신에게 자기의 가장 은밀한 생각이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는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자기 확신의 언표라고 했다. 곧 기도는 기도의 실현을 신뢰하고 표현된 심혼의 소망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의 소원을 소망하고 자기의 심정을 소리 높여 명료하고 힘있게 언표할 때 기도의 결과를 야기하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보았다. 결국 인간이 기도를 듣는 대상자요 심리적 자기 암시의 정신집중으로 낳는 결과라고 하였다.<sup>165)</sup>

틸리히(Paal Tillich)는 “신이란 하나의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이다.”며 그의 신관은 결국 기독교의 인격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다. 이러한 신관 아래서 기도의 문제 역시 현대 감각에 맞는 해석을 하게 되었는바 그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오직 성령의 간구하심 외에’ 인간으로는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의식생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그 자신에게까지 높이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면서 침묵 자체가 기도요 그것은 깊은 탄식이라 했으니 언어로 아뢰는 기도는 유치한 것으로 해석함으로 칼빈이 지적한 일상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라는 것과는 배치된 주장을 하였다.<sup>166)</sup>

요약하면, 회의주의자들은 기도가 자아 신뢰의 진화된 형태라 하였으며, 마리오 퍼클리시는 모든 간구는 마술의 기미가 짙고 이기적인 행복설을 신봉하는 자들이 할 것이라고 하였고, 자유주의 신신학자인 헤리 에멀슨 파스딕은 예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심을 부인하였다. 또한 Otto와 Bonhoeffer는 기도를 ‘독백’으로, Robinson과 Moltmann은 ‘행동하는

---

시 기도를 소외된 자들 속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다.(유광웅, 칼빈의 기도론과 현대기도론 비교연구, p.30.)

164) 유광웅, 「칼빈의 기도론과 현대기도론 비교연구」, pp.32-33.)

165) *Ibid.*, p.34.(Ludwing Feuerbach, 박순경역, 기독교의 본질, 종로서적, 1984. p.115. 재인용)

166) *Ibid.*, pp.35-36.(Paal Tillich, 김경수역, 조직신학, 성광문화사, 1986. p261. 재인용)



일 그 자체'를, 이정남은 '자기 수양'으로, Feuerbach는 '생각하는 자기 암시'로, Tilleh는 '침묵 자체가 기도요 탄식'이라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부여해 주신 기도를 배고픈 친구를 대신하며,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라는 주님의 권고를 오도하는 현대 신학자들과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조류 속에 칼빈의 기도론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니할 수 없다.

## C. 여전히 불완전한 중보기도

우리가 흔히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기도의 성향들을 알고 이를 경계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보다 더 올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정욕에 쓰러고 잘못 구한 것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약4:3)고 하였다. 그러면 불완전한 기도란 어떤 것인가?

### 1. 말씀을 떠난 중보기도

칼빈은 그의 강요 초판에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려는 것은 비정상적인 모독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고, 믿음도 없이 기도하므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런 기도는 모두 신앙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니, 이는 믿음이 굳건히 서기 위해 그 기반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들의 온 힘을 다하여 그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67)</sup>

잠언 28:9에 따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하였다. 신비주의자들이나 광신자들은 언제나 말씀을 떨치하다가 결국 패망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롬9:17)라는 대목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는 말씀은 성경을 인격화 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한다."(살전2:13)고 함으로써 성경을 경시하고 말씀을 떠난 기도는 잘못이라고 하였다.<sup>168)</sup>

또한 딤후4:3-4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고 하였으니 이

167) J. Calvin, 「기독교강요 초판」, p182.

168) 이윤근, 「기도론」, (성광문화사, 1993), p.187.



와같이 진리에서 돌이켰다는 것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말이므로 세상에 속한 것이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등진 기도는 이단들의 욕구불만을 충족하려는 수단이요 방법이며 울부짖음에 불과한 것이다.<sup>169)</sup>

류드슨 콘웰(Judson Cornwall)은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을 때 우리 영혼의 보다 깊은 내적인 소망들과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70)</sup>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요 죄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며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것이다.(사1:15, ..기도할 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 2. 하나님의 뜻을 떠난 중보기도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서 그를 앙망하며 또 쉬지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sup>171)</sup>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겿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기억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과 유익을 앞세운 기도는 잘못된 것임을 교훈하고 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고 있는바 “오 주여, 나는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로 달려갑니다. 만약에 내가 자격이 있다면 당신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열쇠는 아버지에게 달려가며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sup>172)</sup>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히11:6)고 하였으며, 바울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롬14:23)고 하였다. 따라서 믿음으로 영혼구원을 생각하고 영생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생문제를 생각지 아니하고 구하는 것은 하

169) 이윤근, 「기도론」, p.189.

170) Judson Cornwall, 「Praying the Scriptures」 (Lake Mary, FL : Creation House, 1990), p.11.

171) J. Calvin, 「기독교강요 초판」, p.183.

172) 우리는 오랜 세월을 아내 또는 남편과 함께 살고난 후에야 상대의 뜻을 좀더 잘 알 수 있으나 서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 대해 더 빨리 알게되고 더욱 행복해진다는 사실로 미루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C. Peter Wagner. 흥원팔역, 기도하는 교회들만이 성장한다. 도서출판 서로사랑, 1997. p.55.)



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기도인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4:3)고 하였는바 죄 문제의 해결과 거룩한 생활을 위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없다. 바울도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딤후4:5)고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반대로 정욕을 위해 구하는 중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sup>173)</sup>

또한 살전5:18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도가 평소에 불평불만을 가득 품고 육신의 욕구불만만 충족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다. 요나는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며, (욘2:9) 뱀전 4:19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기도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벗어 놓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받는 것보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신다. (마16:24)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십자가인 것이며, 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드리는 중보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기도가 된다.

### 3. 신비의 체험을 위한 기도

우리는 사탄도 자기의 기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비록 그것이 진정한 권능이라기 보다는 사기에 불과하지만 단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하기에는 안성마춤인 것이다.(살후2:9-10) 우상숭배도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더욱 조장되어 왔다. 즉 그들도 기적에는 능했던 것이다. 거짓 표적과 기사를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 올 것임을 주께서 예언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적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살후2:9)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이 기적들은 우상이나 마술사나 혹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sup>174)</sup> 마치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것이 사탄의 꾀계임을 모르거나 한 것처럼 말이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신비의 체험만을 위한 간구는 지양해야 한다.<sup>175)</sup>

마12:38에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

173) 이윤근, 「기도론」,

174) 그들은 정신병자와 초심자들과 귀신들린 자들에게 안수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J. Calvin, 기독교강요 초판, p.307.)

175) J. Calvin, 「기독교강요 초판」, pp.53-54.



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이른 것같이 기독교에서는 신비는 인정하나 신비주의는 배격한다. 혹자는 재림의 날자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24:36에 의하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였는데도 알기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로 잘못 구한 것이 된다.<sup>176)</sup>

또한 “돈을 드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다”(행8:18-)함과 같이 성령의 은사를 엉뚱한데 사용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성령의 은사는 인간들의 호기심이나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목적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함이고(고전12:3),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며(행1:8), 주를 위하여 순교하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이다.(행7:55-) 그런데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해 주겠다는 생각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매개체인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안될 일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비 체험이나 해서 엉뚱한 목적에다 사용하여 신앙적인 영웅이 되겠다는 뜻에서 허영심으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sup>177)</sup>

또한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곧잘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전에 받았던 은사의 회복을 구하거나, 또 다른 체험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는 오직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심을 알아야 하며 단지 체험을 위하여 열심내어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

#### 4. 외식하는 기도

우리는 우리의 결점들을 서로의 흉중에 털어놓고 우리 가운데서 서로서로 조언하고 동정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의 약점을 알고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공훈에 의거한 고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대하여 야고보의 말을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고보는 “누군가가 자신의 비참함을 먼저 고백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공훈을 고백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요컨대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한다. 왜냐면 주께서 ‘모든 입을 막고’(롬3:19)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육체를 자랑치 못하게(참조 롬3:20)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기’(갈3:22)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78)</sup>

176) 이윤근, 「기도론」, pp.192-195.

177) 이윤근, 「기도론」, p.194.



마태복음 6:5-8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였다. “외식”이란 말은 겉치레적인 체면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겉으로만 꾸며서 체면만 유지하려는 생각에서 겉다르고 속다른<sup>179)</sup> 기도를 하는 것은 위선인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고 한 것<sup>180)</sup>과 같아서 주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마6:6)고 하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다. 고전 4:1에도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였듯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충성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봉사한 것까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섭섭하게 하는 것도 잘못이고 성도들을 위하는 척하고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주님보다 부모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도 잘못이고(마10:37),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것 또한 가증한 일이라고 하였다.(잠21:13)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 실천하는 것이 다르면 잘못된 기도이다.

옥한흠은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졌을 때 레위 제사장의 마음이 ‘아이고! 내가 지금 제사 지낼 시간인데 내가 저 사람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다가는 내가 맡은 일을 못하게 될텐데 그냥 눈감고 지나가자’고” 하였던 경우가 바로 외식이라고 하였으며,<sup>181)</sup> 칼빈도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서기관들은 사람의 이웃을 본인의 태도 여하에 따라 결정케 하는 나머지 우리의 사랑을 받을만한 자들이거나 우정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면 이웃으로 대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것은 일반 상식에 불과하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증오를 부끄럼없이 드러내고 그에 대한 이런저런 이유를 떠들어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에서 권하고 있는 사랑은 개인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 빼놓아진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sup>182)</sup>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4:32)고 하였다. 우리는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그리

178) J. Calvin, 「기독교강요 초판」, p.266.

179) John Bunyan은 그의 저서 「Player」에서 기도의 원칙을 실제 삶에 적용함에 있어 “마음속에 사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함은 물론 응답받지 못할 것임을 경고했다. John Bunyan, 「Player」, 정혜숙역, (서울: 도서출판 작은행복, 2000), p.75.

180) John Bunyan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있으므로 하나님의 응답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John Bunyan, 「Player」, p.76.)

181) 옥한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p.198.

182) John Calvin, 신복운 등역, 「칼빈성경주석」, 마태복음 p.281.



하여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양심적으로 가책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sup>183)</sup>

## 5.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

마태복음 6:33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으며, 갈라디아서 3:20에도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A mediator, however, does not represent just one party..)라고 하였다. 때문에 솔로몬은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만을 구하였다.(왕상3:9-)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달과 출세와 물질을 위해 구한다면 바른 기도라 할 수 없다. 눅12:13-21에는 형제가 유업을 나누는 문제를 주께 청하자 예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며 물질만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책망하셨다.

그 예로 어느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논과 밭을 사서 곡식을 심어 가을에 많은 곡식을 수확하여 쌓을 곳이 없어 고민하다가 큰 창고를 지어 그 속에 쌓아 두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즐기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12:13-)고 하였다. 재물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전5:10) 오히려 근심이 되며 믿음을 떠나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것이라고 하였다.(딤후6:10) 사실 가룟유다는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졌고, 발람도 물질 문제로 짐승에게 책망을 받았으며, 아간은 물질 때문에 온 가족이 망하였다.

아굴의 잠언에는 말하기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달라”(잠30:8-9)고 하였다. 참으로 경건한 자의 기도요 욕심이 없는 자의 기도인 것이다.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먹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있다.(사4:7) 그런데 일락(一樂)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sup>184)</sup>

183) 이윤근, 「기도론」, pp.195-199.

184) 이윤근, 「기도론」, pp.199-201.



## 제 VII 장 중보기도의 유익과 방향

### A. 중보기도가 유익되는 점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셨고, 필요한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으로 중보기도의 유익을 지각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 즉 유익한 것을 얻었다는 확신을 주게 된다. 우리가 곤란한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곤란한 우리를 돌보아주시겠다고 자주 또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빈곤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은 모든 좋은 일이 그 안에 있고 심판 날에, 즉 그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실 것이기 때문이다.<sup>185)</sup>

바울은 왕들과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딤후2:2) 그 자신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고(엡3:14), 자기의 일을 위해 기도할 것을 교회에게 부탁하였다.(살후3:1)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롬8:34) 두 사이에 즉각적인 연락이 있다는 것, 견인에 주는 중보기도의 효과가 대단하며 위대하다는 것을 표하였다. 요한도 교회를 위안하여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요일2:1)고 하였고,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거론하여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7:25)고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 사람 말고 주께서 치신 참 장막인 성소의 사역자를 보게 된다.(히8:1,2)<sup>186)</sup>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는 복음의 전도에, 병에, 죄로 인한 곤궁에 능히 관철할 수 있으나 또한 세상에서의 신자의 보전(保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성도의 견인은 그리스도의 중보에 가장 밀접히 연락되어 있어 이 중보의 효과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견인을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중보의 효과를 계산에 넣고 전진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드리신 대언적 기도는(요일7:) 그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후에도 그대로 드리실 것이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바울의 승리적 환호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히9:25)에 적용한 것이다. 그의 지상 성역에서 공활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열정은 하늘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이 천상의 대제사장적 중보(대도)는 우리의 연약함, 위험, 죄

185) *Inst.*, III. x x. 52.

186) 박형룡, 「박형룡 저작전집 V」,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3), p.398.





악한 경향, 심지어 최악한 활동에도 병행한다. 이 대제사장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자신은 떨어지고 그에 의한 가능성만이, 우리가 그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가능성이 남게 된다. 우리의 전 생활이 이 중보에 의해서 보전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sup>187)</sup>

이밖에도 중보기도의 효과는 더 큰 지혜와 능력(엡1:15,19), 속사람의 능력의 강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됨(엡3:16-19),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움(빌1:9-11), 하나님의 뜻과 신령한 지혜를 앎,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열매 맺음, 견딤, 오래 참음, 기쁨(골1:9-12),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딤후2:1,2), 피차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살전3:10-13),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함,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룸(살후1:11,12), 위로와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게함(살후2:16,17),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살후3:5), 믿음의 교제와 선한 모든 지식의 증진(몬6절),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됨과 그 앞에 즐거운 것을 행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히13:20,21) 등이 있다.<sup>188)</sup>

또한 중보기도는 우리를 이기주의로부터 구해낸다. 남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기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기주의의 속임으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 줄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행한 사랑의 행위는 더욱 더 효과적이다. 우정적인 생각이나 친절의 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는, 즉 우리의 시간을 드리거나 돈과 노력을 바치는 구체적인 일을 할 때에야 정말로 우리의 이웃을 위한 삶이 된다. 한편으로 우리는 걱정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 중보기도가 걱정의 속박을 깨뜨리게 한다. 걱정은 독으로 변한 생각이요 내적 갈등으로 변질된 관심이다. 걱정은 힘을 허약하게 하는 불안으로 몰아넣을 뿐만아니라 능력, 곧 도와야 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질식시켜 버린다. 중보기도는 사람들에게 관한 걱정의 해독제이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짐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것이다.<sup>189)</sup>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되 당신의 짐을 지게 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도우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고,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걱정을 일으킨 사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심으로 이 일을 하신다.<sup>190)</sup>

## B. 올바른 중보기도 방향

187) 박형룡, 「박형룡 저작전집 V」, p.399.

188) 김용국, 「중보기도에 관한 일 연구」, (삼육대 신대원, 1997), pp.66-67.

189) 김용국, 「중보기도에 관한 일 연구」, p.69.

190) 김용국, 「중보기도에 관한 일 연구」, pp.68-69.



칼빈은 효과적인 중보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태해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각각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것을 권유하였다. 즉,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음식을 먹으려 할 때,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먹고난 때, 밤에 자려고 할 때 등이다. 그러나 미신적으로 시간을 지키면 안되고 시간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빛을 갠 듯이 해야한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훈련이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곤란을 당할 때, 우리는 속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특히 주의해야 하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sup>191)</sup>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빛소리를 들었음<sup>192)</sup>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로 그 때부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빛소리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혹시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질 것’을 근심하여 계속 기도하였고, 또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오를 때까지 기도했던 것이다.<sup>193)</sup>

또한 칼빈은 오래 참음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권유하고 있다<sup>194)</sup>. 즉, 우리의 마음을 복종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에 지배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참고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우리의 욕망을 보류하고 주를 기다리면서 참게 될 것이다.<sup>195)</sup>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나타나시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시편에는 다윗과 기타 신자들이 기도에 거의 지치고,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말로 허공만 치듯 한 때에도, 기도를 그만두지 않았는데(시22:2)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이 모든 사태를 초월하지 못하면 그 말씀의 권위가 효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sup>196)</sup>

191) *Inst.*, III. x x. 50.

192)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왕상19:41)

193) 여주봉,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새물결선교회, 1998), pp..271-279.

194) 조지 윌러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하여 “나는 젊은 시절의 한 친구의 아들 두 사람을 위해서 52년 동안 매일 기도해 왔다. 그들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구원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큰 결점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간구한다면 그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195) C. Peter Wagner는 야고보서 4장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릇된 욕망과 동기, 목적으로 정욕의 만족을 위해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지적하는 반면, ①올바른 소망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②올바른 동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③올바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고 하였다.(기도하는 교회들만이 성장한다. 도서출판 서로사랑, 1997. p.58.)

196) *Inst.*, III. x x. 51.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실 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줄이게 하시는 듯하면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요한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5:15)고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친절히 잘 들어주시며 그의 말씀을 믿고 가진 소망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sup>197)</sup>

박형룡은 그의 저작전집에 이르기를 열람 될만한 기도의 요건으로 일곱가지를 들고 있는바, 첫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상응하는 숭경의 감(感)없이 장엄한 언사를 사용하거나 감사하는 마음 없이 감사를 표현하거나, 상당한 자비심이 없이 겸허와 자백의 설술(說述)을 하거나, 복수심을 염원함이 없이 간구하는 것은 다 그에게 범죄하는 것- 즉, “신령과 진정으로”(요4:24)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에서 가장 엄밀히 실행되어야 할 것을 말하며, 둘째로는 ‘숭경’으로, 하나님은 무한히 높은 실유(實有)이시어 거룩과 지식과 권능에서 무한하시므로 그의 주의에 둘러 있는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은 그를 숭경으로 모셔야 할 것과, 셋째 ‘겸비’로서 옳과 같은 마음으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외식’과는 반대되는 개념- 정신이며, 넷째로는 ‘간절함’으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한 과부의 심정과 친구에게 떡 주기를 거절한 사람에게 강청하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은사를 구해야 하며, 다섯째 ‘복종’으로, 이는 갓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절대 복종 정신을 말하며, 여섯째는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능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과, 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가 그의 지혜로운 목적과 우리의 최선한 유익에 부응하면 확실히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하는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요16:24) 말씀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요14:13)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중보와 가치의 효능으로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sup>198)</sup>

여주봉은 중보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바,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지키시고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를 나누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신다...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발락이 풀어놓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 즉, 염병에 의해 죽어가고 있을 때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sup>199)</sup>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

197) *Inst.*, III. x x. 52.

198) 박형룡, 「박형룡 저작전집 V」, pp.375-379.



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를 부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한다.<sup>200)</sup>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록 저들의 형편이 가련하고, 무엇보다도 무가치한 것과 같이 보이며, 하나님 앞에 아무 칭찬받을 점도 없는 자들이지만, 언제나 기도할 이유가 있으며, 언제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교훈은 모든 점이 완전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첨언한다는 것은 불경한 것이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무엇을 첨가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뜻의 범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뜻을 멸시하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구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여도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모두 신앙과는 관계없이 하는 것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로 삼아져야 한다. 그러나 주께서 보이신 표준을 경시하고 자기의 욕망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터툴리안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합법적 기도”라고<sup>201)</sup> 부른 것은 옳은 말이며 훌륭한 말이다. 그는 은연중에 모든 다른 기도는 법 밖에 있고, 따라서 금지를 당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sup>202)</sup>

##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199)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모압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이스라엘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열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열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민25:1-15)

200) 여주봉,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pp.271-274.

201) Tertullian, 「On Flight in Persecution ii」. 5(CCL Tertullian II. 1138; tr. ANCL XI. 359).  
재인용.

202) *Inst.*, III. x x. 48.



## 제 VIII 장 결 론

오늘날 교회의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중보기도라 하면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여 불신자와 병든 이웃, 목회자와 위정자,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 등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이해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성경에 언급된 많은 중보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사야서 62:6-7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 날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중보자들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바 이른바 ‘과숫군’<sup>203)</sup>이 그들인 것이다. 누가복음 2장에도 안나라는 여인이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지를 속히 보내주시도록 부르짖은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숭배와 죄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심으로 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하며, 성경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즉, 눅11:5-8의 비유와 같이 자신을 위해 떡 세 덩이를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벼를 위해 강청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본질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자리에 대신 서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둘째로,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해야 하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기 위해 기도로 은혜의 수여자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며, 넷째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생각하기 위함이며, 다섯째로,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감사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섬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오늘날 이른바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그들의 신학에 기도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구원의 서정에 이르게하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소홀히 하였으나 칼빈은 기도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고 논의하였다. 칼빈의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 가장 긴 장은 ‘신앙의 주요한 훈련,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불렀던 기도의 장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기도는 하

---

203) 본 논문 II.A.2. 참조.



나눔을 찾고 그의 약속을 묵상함으로써 신앙을 훈련하고 또한 자신을 들어올려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함으로써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칼빈은 기도의 네 가지 규칙을 제시한바 첫째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접근하라. “하나님의 위엄에 감동되어 기도하라.” 공허한 말의 나열이 아닌 경건한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열망이 하늘에 이른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을 구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그 분의 뜻에 일치되게 모든 것을 구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우리는 부족과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기도에서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하며 요구하고 간청하고 부르짖는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죄의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하고 일으킨다. 셋째로,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의 용서를 탄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넷째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우리는 그 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확정되고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에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을 통해 기도한다. 이러한 규칙은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공적인 기도에도 적용된다.

한편, 칼빈이 성자(聖者)들의 중보기도에 대한 그릇된 교리를 지나칠 정도로 배척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는 당시 교황제도하의 성도들이 성자들의 중보기도에서 피난처를 구하며 성자들이 사람들의 구원까지를 결정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그 앞에 기도하는 무서운 신성모독을 감행하였기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가 흔히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기도의 성향들을 알고 이를 경계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보다 더 올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약4:3)고 하였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이었으며,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셨다. 예수님은 마치 유대인들처럼 규례나 형식에 빠진 기도가 아닌 성부와 진실로 교제하기 원하는 것으로 그의 생의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삶에 힘쓰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교사로서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며, 금식할 때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야 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면서 간절하며, 자기 공로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며, 용서가 전제되어야 하며,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또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그 분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합심기도의 효과와 무엇보다도 기도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완벽한 교훈으로 ‘모범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러한 중보적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이며,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이다. 또한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증거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로 그들을 위해 돕



는 기도로써(마22:37-40)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언하며, 기도로 복음을 널리 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칼빈은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파낸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믿음으로 친구를 위하여 강청하는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예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를 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성한 의무요 귀중한 특권이라 하였고,<sup>204)</sup>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바른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한 기도라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임을 강조하였다.

이 중보기도는 교회를 향한, 교회의 회복을 위한 열심이 크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기도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위해 그분의 팔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sup>205)</sup>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격려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인해 힘을 얻고,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어떤 생각이든지 악한 대적이 일으키는 모든 공격에 맞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이다.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기울어지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만 나아가기를, 즉 변창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sup>206)</sup>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으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며 기도로 요청하는 일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sup>207)</sup>

이제 중보기도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요17:)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롬 8:26-27) 그러므로 중보기도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sup>208)</sup> 자

204) Foster R.J., 1995. Prayer. 송인준역, 「기도」. (두란노. 1995), p.258.

205) Warren W. Wiersbe, 「Famous Unanswered Prayers」

20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초판)」, p.179.

207) John Calvin, 「칼빈의 기도론」, 김성주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2), p.10.



너를 위한 중보기도, 부모나 형제, 나아가 아내와 남편을 위한 기도는 꼭 필요한 사역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한 일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 문이 닫힌 한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는 더욱 소중하고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한가지 유의할 사각지역이 있다면 데이비드 벤트리 테일러가 말한 바와 같이 “기도의 능력은 거리가 멀다고 감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이, 연약함..., 정치적 변화나 제재... 따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은 태만으로 인해서만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 하였는바<sup>209)</sup> 바로 게으름이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켜며 기도의 통로를 막히게 하는 유일한 원인인 것이다.

작금에 들어서 전통적 기도예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새로운 의의를 모색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자연과학의 발달과 인간의 이성의 성숙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현대인을 기만하는 것으로 몰고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각 교회와 선교회,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중보의 메시지를 접하게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보제목이 치유와 문제의 해결, 건강, 믿음, 교회 행사, 목회 사역, 가정사들이 주류이며, 이들 기도제목들은 다분히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내재되어 있는 한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과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바 차체에 ‘예수님의 중보와 우리의 중보기도는 같은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sup>210)</sup>

이제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중보기도’를 주제로 다룬 배경을 피력하고자 한다. 동 주제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기도예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싶은 솔직한 열망이자 나아가 주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첩경이며, 주님과 친밀하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그 동안 많은 내용의 자료들을 검토하며 정리하고, 또 기도중에 깨달은 바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할만한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겠다는 필요와, 기도할 때 나 자신의 뜻을 모두 내려놓고(자신의 신뢰를 온전히 버리고)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진리는 참으로 놀랍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8) 이원상, 「중보기도의 자세」(www.kcpc.org/ Disciples/), (와싱턴 장로교회, 1999), p.1.

209) \_\_\_\_\_,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네비게이트 출판사, 1998.)

210) kndol.sarang.net/korean/prayer.html,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원칙, 2000. 5.> : 여기에서는 효과적인 중보기도원칙을 “①철저한 회개, ②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③무엇을 바라는 욕망부터 배제, ④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⑤기도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⑥말씀으로 마귀 대적, ⑦믿음으로 기다림, ⑧성경을 펴고 기도, ⑨찬양과 감사로 기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參 考 文 獻

### I. 기본 자료

-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 연구원, 1988.
- 이윤근, 「기도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E. M. Bounds, 김원주 역, 「Prayer」,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E. M. Bounds, 이정원 역, 「기도의 능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 Francis Brawn, S.R.Driver, C.A.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1966>. p.813.
- Herman Bavinck, 김영규 역, 「*Magnalia Dei*, 하나님의 큰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John Calvin, 김종흡 등 역,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 John Calvin, 신복운 등 역, 「칼빈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제간행사, 1978.
-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 NEILL  
Auburn Professor Emeritus of Church History Union Theological Seminary  
NewYork.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2000.
- Louis Berkhof, 권수경 · 이상원 역,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 Willam F. Arndt, F.Wilber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s of the New Testament*」. Tr. Walter Bauers(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 II. 보조 자료

- 권태웅,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입  
장 연구」, 안양대 신대원, 1999.
- 김상형, 「그랜드국어사전」, 금성출판사, 1992.



- 김용국, 「중보기도에 관한 일 연구」, 삼육신대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용수, 「갈뱅의 기도 이해에 관한 연구」, 장신대원, 1996.
- 김용택, 「칼빈의 기도론과 현대기도론 비교연구」, 아세아연신대원, 1990.
- 데릭윌리엄스, 이정석 등역, 「IVP성경사전」,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3.
- 데이비드. E. 홀베르다, 류호준 역, 「요한복음」,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도날드 K. 맥킴 공편, 「칼빈에 관한 신학 논문」, 기독교문화사, 1992.
- 루이스 W. 스피츠,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 마크 포웰, 배용덕 역, 「누가복음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맥시 듀남, 오성춘 역,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훈련」,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1991.
- 민명숙, 「三位一體의 歷史的 考察」, 장신대 석사학위논문, 1992.
- 백금산, 「누가-행전에 나타난 기도신학」, 총신대 석사학위논문, 1996.
- 변종길, 「성령과 구속사」,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7.
-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성광문화사, 1997.
- 옥한흠, 「무엇을 기도할까?」, 도서출판 두란노, 1993.
- 이동원, 「찬미회보」, 지구촌교회 중보기도사역위원회, 2000. p.1.
- 이병철, 「칼빈의 기도론에 관한 연구」, 고신대원, 1997.
- 이정현, 「중보기도」, 베드로서원, 1998.
- 전용복, 「중보기도」, 도서출판 두란노, 2000.
- 하용조, 「목회와 신학 '99-7」, 도서출판 두란노, 1999.
- Bounds E.M, *The Complete Works of E. M. Bounds on Prayer*.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90.
- C. Peter Wagner, 홍원팔 역, 「기도하는 교회들만이 성장한다」, 서로사랑, 1997.
- G. I. 위리암슨, 나용화 역,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강해」, 개혁주의신행협회, 1996.
- John Bunyan, 「*Player*」, 정혜숙 역, 서울: 도서출판 작은행복, 2000.
- Robert C. Savage, 임석순 역, 「기도」, 서울: 바울의 교회 출판부, 1999.
- \_\_\_\_\_, 송종섭 역,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서울: 소망사, 1993.



##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_\_\_\_\_,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5·6권, 믿음의 기초, 봉사에의 성장)」, 네비게이토 출판사, 1987.

Judson Cornwall, 「*Praying the Scriptures*」 (Lake Mary, FL : Creation House, 1990)

K. Barth, 「*Prayer according to the Catechisms of the Reformation*」 (ET)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1952)

R.E. Brown, 「*The Pater Noster as an Eschatological Prayer*」, New Testament Essays (Image Books, New York, 1968)

Warren W. Wiersbe, 「*Famous Unanswered Prayers*」.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